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위 원 당 중 앙 회 기 관 지 로 동

제 2 4 8 4 2 호 】 주체 1 0 4 (2 0 1 5) 년 3월 5일 제 64호 【루계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경제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 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 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 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 려나가야 합니다.》

당창건 70돐과 조국해방 7 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일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당중앙위원회,

> 공 업 기 계 성 에 서

펴올리고있다.

맞게 설비마다 만가동, 만부하를

걸고 증산돌격전을 치렬하게 벌

려 저력까벨, 절역서 등 중요지표

계획을 훨씬 앞당겨 수행하였다.

공작기계공업관리국, 륜전기

계공업관리국아래 공장들에서도

전력사정이 긴장한 조건에 맞게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집중적인 생산전투를 벌려 공작

기계와 베아링, 각종 륜전기계부

속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기계련합기업소의 일터마다에서

청천강계단식발전소 대상설비생

산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2월에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

였다. 올해 당창건 일흔돐을 맞

으며 청천강에서 전력생산의 동

음을 울리는가 못 울리는가 하

는것이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달

려있다는것을 명심한 이곳 기업

소들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일

터마다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

두의 칼바람정신을 높이 발휘하

였다. 그리하여 2월에 여러대의

발전기와 타빈생산을 결속하고

압축기와 수문바퀴생산에서 자

에서도 설비들의 만부하보장에

힘을 넣어 생산을 늘이였다. 공

장에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더욱 짜고들고 같은 자재와 원료

로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

전반, 규소정류기 등 지표별생산

우리 당의 최첨단돌파사상을

심장깊이 새겨안은 전자자동화

설계연구소의 일군들과 설계가,

과제를 빛나게 완수하였다.

랑찬 실적을 올리였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룡성

기계공업성에서 뜻깊은 2월 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성아래 각지 공장, 기업소들 에서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부 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중 요대상설비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린 결과 계획수행 기간 성적인 발전기, 타빈, 공작 기계,베아링,전력까벨,전동 기, 변압기 등 중요현물지표계 획이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성일군들은 광명성절을 맞는 2월에 중요대상설비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할 목표를 내 걸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었 다. 특히 청천강계단식발전소, 세포지구 축산기지, 미래과학자 거리 등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보 내줄 설비, 자재생산에 주되는 힘을 넣고 해당 공장, 기업소들 에 생산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해 뛰고 또 뛰였다.

전기기계공업관리국이 1.4분 기계획을 한달이상 앞당겨 수행 함으로써 성적인 계획수행에 크 게 기여하였다. 특히 평양326 전선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유리한 생산조건이 갖추어진데

전 자 공 업 전자공업성에서 2월 인민경 로동자, 기술자들이 불리한 조건

제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134%로 넘쳐 수행하였다. 계획수행기간 성아래 각지 공 장 로동계급의 헌신적투쟁에 의 해 각종 전자설비들과 기구들이 많이 생산되여 청천강계단식발 전소와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과 현 대화로 들끓는 인민경제 여러 단위들에 보내여졌다.

평양자동화기구공장 일군들과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일군들 과 로동계급이 뜻깊은 2월계 획을 빛나게 수행한 기세로 증 산돌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

> 제들을 훌륭히 해결하였다. 함흥자동화기구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집단적기술혁신운동 을 힘있게 벌리면서 각종 전자기 구생산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평

설계원들이 첨단돌파의 높은 목

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

리였다. 여러 발전소건설장들과

현대화대상들에 달려나간 이들

은 서로의 지혜를 합쳐가며 현

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대축전장을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2월 석탄생산계획을 101% 로 넘쳐 수행하였다. 이것은 지 난해 같은 달에 비해 근 2만t의 석탄을 더 생산한것으로 된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 들이 막장마다에서 비약의 불길

을 세차게 지퍼올리였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 소에서는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예비채탄장이 넉넉히 마련된 현 실조건에 맞게 운반능력을 높이 고 기술공정관리를 잘 짜고듦으 로써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이 높 은 수준에서 정상화되게 하였다.

련합기업소의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과 탄부들이 석탄증산투 쟁에서 위훈을 창조해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잘 짜고들었다. 련합기업소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남덕탄광에 서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군들이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벌린 결과 탄팡 의 모든 갱과 중대들에서 생산 에 모든 힘을 총집중할수 있었 다. 특히 2갱과 10갱의 탄부

평 양 식 료 련 합 기 업 소 에 서

을 맞는 2월 인민경제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154%로

계획수행기간 련합기업소아래

성자동화기구공장에서도 내부예 비를 최대한 동원리용하고 새 기 술도입에 힘을 넣어 성능높은 풍 력발전기들을 많이 생산하였다.

청진자동화기구공장, 함흥영 예군인자동화기구공장을 비롯 한 성아래 다른 공장들의 로동 자, 기술자들도 일터마다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 며 맡겨진 2월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들이 석탄증산투쟁을 힘있게 벌 려 2월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석탄생산계획수행에서는 회

안탄광이 앞장에 섰다. 생산조 건은 불리하고 부닥치는 난판이 많았지만 일군들이 자기 단위의 사업을 전적으로 당앞에 책임진 다는 립장에 서서 석탄증산투쟁 에로 탄부대중을 옳게 발동함으 로써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였 다. 1 갱과 2 갱의 탄부들이 한t 의 석탄이라도 화력발전소에 더 보내줄 한마음을 안고 증산성과 를 끊임없이 확대하였다.

인포탄광 3갱, 송남청년탄광 1 갱과 3 갱의 탄부들도 당중앙 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당중앙 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 구호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 증산성과를 확 대함으로써 2월전투를 승리적 으로 결속하였다.

송남탄광기계공장의 일군들 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1월에 이어 2월에도 많은 탄차와 탄 광설비부속품을 생산하여 증산 투쟁으로 들끓는 련합기업소 탄 광들에 보내주었다.

넘쳐 수행하였다.

모든 식료공장의 로동자, 기술자

평양식료련합기업소의 일군 들은 불타는 열정을 안고 충정 낮과 밤을 이어감으로써 과류와 청량음료, 콩우유와 애기 젖가루, 간장, 된장을 비롯한 중 요지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 는 집단적혁신을 창조하였다. 평양밀가루가공공장, 평양 곡산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은 맛있고 영양가높은 당과류를 더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기 위 한 불꽃튀는 전투를 벌림으로써 뜻깊은 2월을 자랑찬 로력적성

과로 빛내이였다. 대동강식료공장에서는 과학 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제품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서 생산활성화의 동음을 더 높 이 울리였다.

평양기초식품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위대한 장군님의

단천광업건설련합기업소에서

2월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

단천광업건설련합기업소에서

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검덕지구와 단천지구를 비롯 한 10여개 중요대상공사를 맡 은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련 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자, 기술 자들은 부닥치는 난판을 파감히 박차며 줄기찬 투쟁을 벌려 2월 에도 일자리를 크게 내였다.

계획수행기간 련합기업소일 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가 유훈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현 대적인 설비들이 커다란 은을 내 게 함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향상 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였다.

합차게

경련애국사이다공장, 락랑영 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아래 모든 공장의 일 군들과 로동계급도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질좋 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맡겨지 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하

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슴마다에는 자랑찬 로력적선 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 에 뗫뗫이 들어설 불같은 열 의가 용암마냥 끓어번지였다. 이들은 많은 량의 철강재를 회 수리용하고 언제공사에 필요 한 골재들을 자체로 해결하면 공사속도를 높이였다. 얼마 전에도 련합기업소의 전체 종 업원들이 떨쳐나 미광침전지 건설공사에 필요한 수만㎡의

의 철강재예비를 찾아내여 중 요대상공사를 힘있게 다그쳐 끝낼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 았다. 중요대상건설에 참가한 건설자들은 건설공법의 요구 를 철저히 지키면서 낮과 밤 이 따로 없는 맹렬한 공격전

청 천 강 화 력

청천강화력발전소의 일군들 과 로동계급이 불보다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안고 증산투쟁에 드센 박차를 가함으로써 뜻깊은 2월 전력생산계획을 빛나게 완 수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이곳 일군들은 경 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공장, 기업소들에 필요한 증기를 제때 에 보장하면서도 전력생산과제 를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기 위 한 경제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 로 해나갔다.

생산의 주요공정을 맡은 열생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련합기업소의 당, 행정일군들은 들끓는 건설장마다에서 협의회 를 수시로 열고 화선의 지휘관

으로 성과를 확대하였다.

들처럼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 나가며 보다 높은 공사실적이 기록되도록 하였다. 동시에 화 선식정치사업을 전투현장에 바 싹 접근시키고 경제선동의 북소 리를 우렁차게 울려 건설자들의 가슴마다에서 결사관철의 의지 가 끓어번지게 하였다.

발전 소에서

산직장의 로동자들이 비상한 각오를 안고 분발해나섰다.

이들은 자체의 특성에 맞게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큰 힘을 넣고 보이라들의 만부하를 책임 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증산의 동 음을 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이 에 발맞추어 타빈직장과 전기직 장의 기술자, 기능공들도 설비운 영을 철저히 과학기술적요구대 로 진행하여 매일 맡겨진 생산

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였다. 공업시험소를 비롯한 발전소의 기술자들도 자체의 힘으로 전력 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 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면서 계 획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본사기자



전 당 건 설 에 서

평양속도를

- 룡 성 기 계 련 합 기 업 소 에 서 -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새 로

창조하자

단 일 무포숙

【대홍단 3월 4일발 조선중 앙통신】백두산지구 혁명전적 지답사행군에 참가하고있는 전 국행정책임일군들이 4일 무포 숙영지와 대홍단일대를 답사하

답사행군대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주체 28(1939)년 5월 조선인민혁 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조국 진군의 길에서 숙영하시였던 무 포숙영지를 찾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 혁명군 지휘관회의를 소집하시 고 대홍단지구진출을 위한 전투 적과업을 제시하신데 대한 해설 을 들으며 그들은 사령부자리와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 밥을 지으신 자리, 우등불자리 등을 돌아보았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력사적사명감을 지니 시고 항일대전의 피바다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고귀한 발자취와 항일유격대원 들의 불보다 뜨거운 조국애, 혁 명적인 생활기풍이 력력히 어려 있는 사적물들은 그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온 사 회의 김일성주의화위업실현을 위 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무 포낚시터를 참관하면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지 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당과 혁 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가기 위해 바치신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새겨안았다.

신사동혁명전적지에 도착한 답사행군대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영상을 모신 모자 이크벽화앞에서 해설을 듣고 전 적지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사적물들을 통하여 신사동인 민들에게 친어버이의 사랑을 안겨주시고 그들의 가슴마다에 혁명의 불씨를 심어주시며 반일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신 절세위인의 업적을 체득하였다.

전 국행 정 책 임 일 군 들 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자욱 이 아로새겨져있고 혁명선렬들 의 애국의 넋이 깃들어있는 항 일전구들에 대한 답사를 혁명전 통학습의 뜻깊은 계기로 삼으며 행군길을 다그쳐 대혹단혁명전 적지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무산지구전투승리기 념탑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 을 진정하였다.

무산지구전투를 지휘하시는 20대 청년장군의 모습을 우러 르며 숭고한 경의를 표시한 답 사행군대원들은 대홍단전투지 휘처와 왜놈들의 머리우에 불벼 락을 들씌우던 통쾌한 전투의 증견자인 이깔나무들을 돌아보

세월 버림받던 불모의 오랜 땅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 한 령도밑에 천지개벽된 대홍단

의 모습은 기념탑의 대형부주제 부각군상과 함께 그들의 가슴마 다에 깊이 새겨졌다.

이날 답사행군대원들은 무봉 로동자구주변에 천막을 전개하 고 숙영하면서 항일빨찌산참가 자들의 회상기와 답사소감발표 모임들을 가지였다.

그들은 회상기 《필승의 신 념》, 《보천보전투》, 《조국에로 진군하던 길에서》에 대한 발표 모임에서 백두의 혁명전통은 우 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주체위업완성을 위한 귀중한 밑 천이라는것을 심장깊이 절감하 였다고 토로하였다.

그들은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 지 않는 강의한 정신력을 지니 고 억천만번 다시 일어나 원쑤 를 쳐부신 항일투사들의 백절불 굴의 투쟁정신을 꿋꿋이 이어 강성국가건설에서 혁명의 지휘 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 불타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승리

의 한길로 이끌

어오신 주체혁명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나갈 굳은 맹세 를 가다듬었다. 답사행 군기 간 전국행정책임일 군들은 혁명사적 지,혁명전적지 관리사업에 필요 한 물자들을 넘 겨주었으며 항 일유격대원들처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여 러가지 군중정

치사업을 활발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과학기술전당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철저 히 관철하기 위한 군민궐기모임

이 4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오수용동지, 로두철동지와 한 광복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 장, 건설에 참가한 군대와 사회 의 일군들, 군인들과 건설자들 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비서 오수용동지의 보고 에 이어 조선인민군 장령 최상 욱, 내각 제1사무국 부국장 박 훈, 조선인민군 군판 김수학, 평 양시건설관리국 기사장 리만수 가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한겨울의 바람세찬 건설장을 찾으시여 공사진행정 형과 자재보장대책을 구체적으 로 료해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 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 건설자들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

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공사지휘부와 각 시공단위 일

궐 기 정책옹위전의 기수, 본보기답게 혁신적인 공법을 창안도입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가고있 는데 대해 평가하시고 공사를 빠 른 시일안에 최상의 수준에서 끝 낼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 은 공사에 떨쳐나선 전체 군인들 과 건설자들의 가슴마다에 새로 운 힘과 용기를 안겨준 원동력이 며 과학기술전당을 국보적이며 세계적인 멋쟁이건축물로 일뗘 세우는데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고귀한 지침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과학기 술의 위력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현지말씀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

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과업을 조항별로 따져가며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면밀한 대 책을 세우고 그것을 제기일에 수 햇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

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군인건설자들은 공사의 돌파 구를 앞장에서 열어제끼며 인민 군대의 단숨에의 기상으로 공사 전반을 주도해나감으로써 강성 국가건설의 주요전구에 불러 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의 믿음에 높은 공사실적으로 보답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건설자들은 과학기술전 당을 21세기 주체건축예술의 척도를 보여주는 건축물로 일뗘 세울데 대한 당의 의도를 가슴 깊이 새기고 질보장에 선차적관 심을 돌리며 설계와 공법의 요 구를 철저히 지켜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일군들은 작전도 지휘도 총

화도 립체적으로, 전격적으로 하며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 키기 위한 현장정치사업을 공세 적으로 참신하게 벌려 공사장에 언제나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 백이 차넘치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과학기술전당건설이 끝나는 동 시에 그 운영을 할수 있도록 최신 과학기술자료기지구축사업과 봉 사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보장, 과 학자, 전문가, 봉사성원선발배치 사업도 짜고들어 진행하도록 하여 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공사에 참가한 모든 군인들 과 건설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 의 명령관철을 위한 대건설전투 의 한전호에 섰다는 심정으로 서로 돕고 이끌면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갈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열풍 을 세차게 일으켜 과학기술전당 건설을 당창건 일흔돐까지 무조 건 끝내고 쑥섬을 과학의 섬으로 훌륭히 전변시킴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정의 보고 영광의 보고를 드리자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

였다.

【조선중앙통신】

을 수리하는 성과를

함경남도협동수산 배수리계 회 4 분 기 경리위원회에서 배수 리전투를 대담하고 합경 남도 협동수 산경 리위원회에서

통이 크게 벌려 성과 리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 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곳 협동수산경 리위원회와 그아래 각지 수산협 동조합들, 배수리공장들에서는 지난 2월 20일까지 1.4분 기 배수리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 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수준 을 한단계 높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이곳

협동수산경리위원회에서는 배수

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 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강현식, 리락균동무 를 비롯한 일군들은 배수리목표 를 높이 세우고 조직사업과 총화 사업을 깐지게 하면서 어로공들 을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고무추 동하고있다. 도협동수산경리위 원회에서는 1.4분기안으로 수 백척에 달하는 모든 배들을 수 리하기 위한 단계별목표를 명백 히 세우고 력량을 집중하여 련 일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봉 수, 장호, 우관진수산협동조합 들이 당면한 물고기잡이는 물론 배수리에서도 혁신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 판을 자체의 힘으로 맞받아뚫고 나가면서 배수리전투를 본때있 게 벌리고있다.

신창수산협동조합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대용에네르기에 의 한 전기생산과 수리에 필요한 자 재보장에 힘을 넣고 합리적인 배 수리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짧은 기간에 수십척의 크고작은 배들

행 거두었다. 방진재배어업 및 선박수리공장과 리원 선박수리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도 배수리에 력량을 집중하여 련 일 실적을 올리고있다.

1.4분기 배수리계획과 물 고기잡이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기세드높이 도협동수산경리위원 회 일군들과 신창수산협동조합 을 비롯한 도의 수산협동조합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해당 기관 들과의 긴밀한 런계밑에 현대적 인 배를 뭇기 위한 사업과 조리 개와 자망, 덤장을 비롯한 어구 보수와 새로운 어구들을 마련하 는 사업도 잘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봄이 왔다.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해의 봄이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더욱 류다른것 아 니라.

CH XI OII

해방의 열파로 대지마저 설레이는 속 에 처음으로 맞이한 민주의 새봄을 잊을 수 없다. 우리 수령님 찾아주신 조국땅 의 뗫뗫한 주인이 되여 행복의 씨앗을 뿌려가던 농민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해방전에도 이 땅에 자연의 봄은 왔었 다. 하지만 그 봄은 고역의 계절과도 같 았다. 봄철에 우리 농민들은 땅에 씨를 뿌린것이 아니라 피눈물을 뿌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을 찾아주심으로써 우리 인민 은 나라의 주인, 땅의 주인으로 되였다. 영원한 인생의 봄, 진정한 우리의 봄을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인으로 내세우 고 인민대중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신 위대한 인민의 수령이시다. »

해방된 조국의 첫 기슭으로 추억의 노 를 저어본다.

조국에 개선하신 우리 수령님앞에는 참 으로 많은 일감들이 쌓여있었다. 먼저 당 창건위업을 실현하시고 북조선림시인민 위원회를 수립하시여 우리 인민을 해방된 조선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주개혁의 첫 사업으로 토 지개혁을 실시할 의지를 굳히시였다.

토지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만 사회발 전의 질곡으로 되고있는 봉건적생산관계 를 청산하고 농민대중을 세기적락후와 빈궁에서 해방할수 있으며 민주주의 새 조선을 건설할수 있었다. 토지개혁을 실 시하는것은 농민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 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토지문제를 우리 식으로 해결하시 기 위하여 바치신 심혈을 무슨 말로 다 전할수 있을것인가.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인 토지문제

를 그들의 의사와 념원에 맞게 실현하시 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그러하 시였듯이 인민들속으로 들어가시였다.

울려퍼진

가시는 곳, 들리시는 곳마다에서 농민 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며 땅에 대한 그들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료해 하신 우리 수령님.

그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농촌실정에 맞는 토지의 몰수대상 과 몰수 및 분배방법, 소작제도를 영원히 없애기 위한 방도 등을 확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여 주체 3 5 (1 9 4 6)년 3월초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 5차 확 대집행위원회를 소집하시고 토지개혁의 실시와 관련한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력사의 날이 왔다.

주체 3 5 (1 9 4 6)년 3월 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시여 북반부에서 토지개혁 의 실시를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토지개혁법령발포, 그것은 원한의 피 눈물로 절던 이 땅의 지난날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나라 농업력사의 빛나는 첫걸 음이 시작되였다는것을 온 세상에 알리 는 선언이였다. 그것은 우리 나라 농촌 의 세기적인 전변의 새 력사가 시작된 위대한 사변이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의 심중이 얼마나 뜨거우시였으라.

인민의 위대한 아들로서 인민의 숙망을 온몸에 체현하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땅이 없는 겨레의 슬픔을 누구보다 뼈

절게 새겨안고있던 만경대고향집에서 인 민의 소원을 절감하신 우리 수령님, 항일혁명투쟁시기 새형의 혁명정권인 인민혁명정부를 창설하시고 유격구인민 들에게 평생의 소원인 땅을 안겨주시였

으며 해방된 조국의 앞날을 그려보시면 《조국광복회 1 0 대강령》에서 토지혁명강령을 천명하신 우리 수령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지는 발갈 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를 제시

하시고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을 토지개혁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우시 였으며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토지

민주개혁의

오늘도 발갈이하는 농민들을 땅의 주 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무상몰수, 무상분 배의 원칙에서 토지개혁을 하며 몰수한 땅을 국가소유로 하지 않고 농민들의 개 인소유로 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열정에 넘치신 모습이

토지개혁방침,

그것은 우리 나라 농촌에 뿌리깊이 남 아있던 봉건적인 토지소유제도와 착취관 계를 철저히 없애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단계에서의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가장 정확히 해결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 인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 여 우리 나라에서 토지개혁은 짧은 기간 에 큰 편향이 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그 리고 사회주의에로의 계속혁명의 요구에 맞게 가장 철저하게 수행되였다.

력사의 그 나날에 새겨진 많고많은 이야 기들이 오늘도 가슴뜨겁게 전해지고있다. 토지개혁이 한창이던 어느날이였다.

어느 한 농촌위원회에 들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토지개혁사업이 잘되 고있는지 보고싶어왔다고 하시면서 일이 잘되는가, 농촌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조 직하였는가, 현재 일은 어느 정도 진척되 였는가 등에 대하여 일일이 알아보시였다.

바로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지난날 지주집머슴으로 잔뼈가 굵어온 박로인이 이 마을의 지주가 살던 큰 기와집에서 살도록 해주시고 몸소 《박장반》이라 는 문패까지 쓰시여 영원한 주인의 징표 를 대문기둥에 달아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이렇듯 세심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이 있어 천대와 멸시를 받으 며 살아오던 우리 농민들은 이 땅의 진 정한 주인으로 될수 있었다.

참으로 토지개혁은 우리 나라 혁명발 전과 새 사회건설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 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되새겨볼수록 감회롭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봄날에 차넘치던 인민의 환희가 생생히 되살아오른다.

기쁨에 겨워 수령님 주신 땅으로 물결

ᅙ

Ľ

첫 立 呂

쳐가던 농민들의 웃음넘친 모습, 한줌의 흙을 쥐고 얼굴에 부비며 눈물흘리던 모 습, 밤이 지새도록 분여받은 제땅에서 뗘 날줄을 모르던 모습, 수령님 주신 땅에 해방의 봄씨앗을 뿌리던 행복넘친 모습 들이 선히 안겨온다.

난생처음 분여받은 제땅에 자기의 이름 이 새겨진 말뚝을 쾅쾅 박던 여무진 메소 리며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은덕이 너무도 고마와 목메여 터치던 이 나라 농민들의 만세의 환호성이 귀전에 울려오는듯싶다. 땅은 언제나 있었다.

그러나 해방전 제땅이 없어 귀한 자식 을 굶겨죽여야 했던 우리 농민들이였다. 땅이 없어 대대로 소작살이, 머슴살이를 하면서 이른봄부터 가대기를 끌며 농사 를 짓고도 가을에는 피눈물을 흘려야 했 던 우리 인민이 아니던가.

하늘에 빌어도, 세월에 빌어도 가질수 없었던 땅이였다.

고역과 설음에 울던 이 나라 농민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기 위하여 해방 후 첫 민주개혁으로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신 우리 수령님,

봄날과 더불어 영원히 추억할 우리의 3월 5일이다.

어느덧 6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세기를 내려오며 우리 농민들의 목에 착취와 예속의 올가미를 들씌우던 봉건 적토지소유관계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짧은 기간에 토지개혁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할것이다.

잊지 못할 력사의 그 봄날과 더불어 혁명의 년대들마다 우리 나라에서의 농 업문제, 농민문제해결에 선차적인 판심을 돌려오시였으며 한평생 농장길, 포전길을 걷고걸으시며 사회주의농촌 건설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로고와 은덕을 인민은 영원히 못 잊는다.

사회주의대지우에 봄빛이 흐른다. 봄빛과 더불어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의 정을 불

본사기자 김철 혁

3월 5일! 이날이면 우리모두는 사회주의 조국의 대지를 한가슴 에 안아본다.그러면 누구에게나 근로하는 었다. 농민을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력사의 그 나

를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 였다.

날에 대한 추억이 뗘오

《김정숙동무는 언

0

제나 자기자신보다도 조국과 인민, 동지들 을 먼저 생각하였으 며 조국의 자주독립 과 인민의 자유와 해 방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쳤습

LICH. »

해 방 후 위 대 한 수령님께서는 새 조선 건설을 위한 제반 민주 개혁을 수행하는데서 토지개혁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

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업 을 보좌해드리시기 위 하여 정력적으로 활동 하시였다.

주체 3 5(1 9 4 6) 년 3월 어느날이 이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대 동군의 한 농촌마을을 찾으시였다. 땅의 주인된 농민들은 크나

큰 감격과 기쁨에 휩싸여있 였다. 었다. 농민들은 논밭을 갈아엎으며

게 쇠였는가 하는것도 알아두

어야 한다고 의미깊은 말씀을

민속명절 정월대보름날의

화폭들이 오늘도 선히 어려

우리 선조들이 쇠여온

설명절다음에 오는 첫 보름

을 정월대보름이라고 하였는

데 우리 인민들은 삼국시기부

터 정월대보름을 쇠여왔다.

정월대보름날에는 달맞이, 탈

놀이, 연띄우기, 바줄당기기

정월대보름날 저녁이면 고

올라 떠오르는 쟁반같은 둥근

달을 바라보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달맞이풍습도 창조하

고 지켜오면서 정서적인 생활

그해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긴

다고 하면서 달구경을 할 때

에는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

기도 하였다. 정월대보름날의

었다. 그리고 모든 칼집의 한

달을 먼저 본 사람에게는

등을 진행하였다.

을 하였다.

씨붙임을 하고있었다. 그들의

하시였다.

온다.

마음이런듯 해방된 조선의 첫봄 을 증산으로 맞이하며 한치의 땅도 묵이지 말자라고 쓴 구호 가 논벌가운데 높이 세워져있

김정숙동지께서는 농민들과 함께 씨를 뿌리시였다.

얼마후 김정숙동지께서는 농 민들과 같이 휴식을 하게 되시

휴식참에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들과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시 였다.

농민들은 한없이 소탈하신 그이께 앞을 다투어 땅을 분여 받은 기쁨에 대하여 말씀드리

한 농민은 대대로 머슴을

살던 자기 집에서 5 000 평이나 되는 땅을 분여받은데 대하여 감격에 겨워 말씀올리 였다. 또 다른 한 농민은 논밭에 제

이름을 쓴 패말을 박으며 울었 다고, 정말 이 땅이 내 땅인가싶 어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때 누군가가 그이께 땅을

다시 내놓게 된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 정말 땅이 영원히 우리 농민의것이 될수 있는가고 품 고있는 의문을 솔직히 털어놓 았다.

그러자 김정숙동지께서는 그것은 땅을 빼앗긴 청산된 지 주들이 내돌리는 나쁜 요언이 라고, 농민들은 영원히 땅의 주인으로 되였다고, 그 누구도 장군님께서 주신 땅을 다시는 빼앗지 못할것이라고,나라없 던 그 세월 한갖 꿈속에서만 그리던 우리 농민들의 절절한 숙망을 헤아리시여 장군님께서 주신 땅을 우리는 피로써 지켜 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

그러시고는 농민들에게 항임 무장투쟁시기 유격근거지들에 서 땅을 지켜싸운 이야기를

절과 같은 명절놀이에서뿐아

니라 로동생활, 문화생활, 도

덕생활 등에서 우수하고

훌륭한 민속전통을 창조하였

다고 하시면서 우리 선조들

이 대를 이어오면서 창조한

민속전통은 우리가 잘 보존

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할

귀중한 민족적유산이라고

그이께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는가고 물으신것이 단순히

정월대보름날이라는것을 알

태고적부터 찬란한 문화전

통을 창조하고 빛내인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민속전

통을 영원히 고수하고 빛내이

시려 그토록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열렬한 애국

의지에 일군들은 끝없이 감동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

고 아름다운 민속전통을 가지

고있다는 높은 긍지를 간직하

그 제 서 야 일 군 들 은

강조하시였다.

깨달았다.

되였다.

향마음의 주변언덕이나 사에 려주시려는데만 있지 않음을

감명깊게 들려주시면서 유격근 거지의 인민들처럼 분여받은 땅 을 목숨으로 지킬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새겨안으며 농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이 땅을 목숨으로 지켜 갈 마음속다짐을 굳게 하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지금 땅 을 빼앗긴 지주들은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고, 지주들은 앞으 로 《통일정부》가 서면 농민들이 땅을 도로 내놓게 된다고 하면 서 요언을 퍼뜨리고있다고, 심 지어 지주들은 견실한 농촌일군 들과 핵심당원들을 살해하는 비렬한짓까지 서슴지 않고 감행 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적 들의 발악적인 책동이 심해질수 록 장군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장군님께서 주신 땅을 끝까지 지켜야 하며 농사를 더 잘 지어 건국의 기초를 튼튼히 닦아야 한다고 절절히 호소하시 였다.

김정숙동지의 귀중한 가르치심은 농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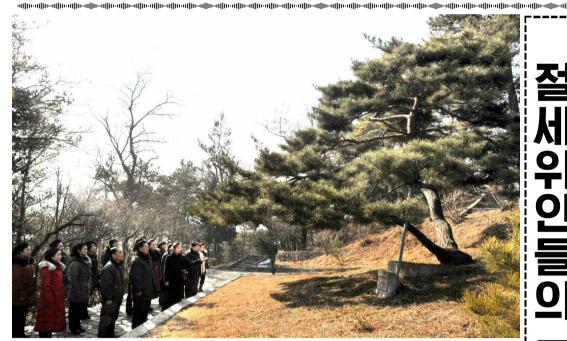
영원한 땅의 주인이 되는가 아니면 원쑤에게 땅을 빼앗기 는가.

땅을 분여받고 감격과 기쁨 에만 넘쳐있던 농민들은 그것 이 철저히 자신들에게 달려있 다는것을 톡톡히 알게 되였던

것이다. 어찌 토지개혁때뿐이라.

해방은 되였으나 나라의 정 세가 복잡한데 어떻게 한시인 들 자리를 뜨겠는가고 하시며 그립던 고향을 찾는것도 뒤로 미루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부 강조국건설로선을 앞장에서 받드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못 잊어 뜻깊은 오늘도 사회주의대지는 설레이 고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조국애를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 장산혁명사적지에서 -

보 근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정이 새해의 첫날부터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따사

로이 흘러들었다.

신년사를 마치시는 길로 평양 육아원,애육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육아원 과 애육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우리 당의 후대사랑,미래사 랑이 원아들에게 그대로 가닿도 록 하는데서 자기의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당부하시면서 원아 들에게 친어버이의 다심한 정을 기울여주시였다.

양력설이야기였다.

《애육원은 우리 집》,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앞에 서 행복과 기쁨에 겨워 원아들 이 부른 노래의 제목이다.

아직은 꽃망울에 불과한 원아 들의 그 소박하고 꾸밈이 없는 목소리를 들어보시라.

그리고 후대들에 대한 열화같 은 사랑을 지니시고 조국의 미 래를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정과 열에 대하여 생각하시라.

희망넘친 새해의 첫아침 경애하는 원수님의 평양육아원, 애육원에 대한 현지지도는 우리 당이 변함없이 들고나가는 혁명 의 붉은기가 무엇을 위한것이며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우리가 어 린이들의 웃음소리를 어떻게 지 키는가, 사회주의를 어떻게 고수 전쟁의 불길속에서 부모잃은 고

해

하는가를 다시금 소중히 새겨준 위대한 사랑의 길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 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는것이 우리 당의 투쟁목표 입니다. »

온 나라 천만아들딸, 부모없는 원아들까지 떨어질세라, 놓칠세 라 위대한 사랑의 한품에 품어 안으시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자애로운 어버이가 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 그것은 세상에 다시 없을 회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새해에 선참으로 자기들을 다 바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 고한 결심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모두는 과연 무엇을 새겨안았던가.

그것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 희망과 미래의 전부 인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사랑과 헌신의 길을 끌없이 이어가실 경애하는 그이의 드팀없는 신념 과 의지였다.

혈전만리를 헤쳐야 했던 항일 의 나날 눈보라 사나운 마안산 의 헐벗고 굶주리는 아동단원들 을 위해 어머님의 사랑이 깃든 사연깊은 돈 20원을 내놓으시 였고 해방후 새 조국건설을 위 해 바쁘신 속에서도 전국도처에 애육원을 세우도록 마음쓰시였 으며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날 아들을 최고사령부에서 키우신

어버이수령님.

위대한 장군님,

나라가 고난을 겪을 때에도 전국의 육아원들에 대한 후방보 장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계획된 주식물과 부식물, 옷류 등 필요 한 물자와 자재를 무조건 보장 해주도록 하는 특별조치를 취해 주시고 사랑의 왕차들이 거리 를 누비며 달리도록 해주신

그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 이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이 땅 의 이르는 곳마다를 찾고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인민 의 심장마다에 더욱 뜨겁게 흘러 들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지니시였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안으시고 새해의 첫 날 또다시 평양육아원,애육원 을 찾으시여 힘들어도 보람있는 길을 걸어왔다는 자부심이 생긴 다고 하시며 친어머니의 심정으 로 원아들을 훌륭히 키워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귀여운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가 있기를 따뜻이 축복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사랑이, 온 나라가 화목 한 한가정을 이룬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원아들의 맑은 눈동자들에 그대로 비끼였는가 아이들의 궁전에 기쁨의 노래소 리 끝없이 넘쳐나고있다.

애육원은 우리 집이라고. 본사기자 리금분

오늘은 정월대보름날이다.

민족의 향취 넘치는 이 강 산에 찾아온 민속명절 정월대 보름은 우리 조선민족의 유구 한 력사와 문화전통을 자랑하 는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민족 적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고

오랜 력사적과정을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된 자기의 고 유한 민속전통을 적극 살리고 내세우려는것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공통된 지향이며

하지만 그 지향과 요구 가 저절로 실현되는것은 아

지구상의 여러 민족들이 자 기의 고유한 민속전통을 잃어 버린 가슴아픈 비극은 아무리 력사가 오래고 우수한 민속전 통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지켜 주고 꽃피워주는 위인을 모시지 못하면 빛을 뿌리지 못하게 된다는 진리를 새겨주

는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

로 보시고 민족적전통을 빛내 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업적을 정월대보름날은 길이 전하고있다. 대 항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민족적풍습을 살리 는데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 어느해 정월대보름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

에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 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대답을 드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들에게 오늘이 바로 정월대 보름날이라고 알려주시 였다. 일군들은 그제서야 그날이

조상전래로 쇠여온 민속명절

인 정월대보름날임을 알게 되 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

에게 친히 가지고오신 조선엿 을 맛보라고 들려주시며 지난 날 우리 선조들이 설을 어떻

하고계시던 안을 내놓으시였 다.그것은 은장도와 금반지

였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생활상에서의 온갖 위험으로 부터 자신의 생명과 행복을 지켜주리라는 소박한 념원에 서 장도를 즐겨 리용하여왔 다. 반지 또한 행복과 기쁨의 상징으로 간주하며 녀성들이 즐겨 리용한 치레거리의 하

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쌍 둥이들에게 줄 은장도와 금반

음식들 또한 얼마나 감미로운 것이였던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

> 쪽면에는 옹근 출생년월일을 새겨넣어 칼을 보면 세쌍둥이 들의 생년월일과 그가 몇째라 는것을 알수 있게 하였다. 금 반지에도 태양을 따르는 꽃이 되라는 뜻에서 한가운데에 세 송이의 해바라기꽃을 형상하 여 만들고 그안에 홍보석들을 끼워 세쌍둥이를 형상하였으 며 반지안에는 은장도와 같은 형식으로 출생년월일을 차례

로 새기였다. 그해 10월 완성된 은장도

와 금반지 를 보시며 아주 잘 만 O 들었다고 더 없 이

태여난 세쌍둥이들에게 주

나라마다 세쌍둥이들이 있다 고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처럼

땅에서 고고성을 터친 자랑은 어른이 된 후에도 그들의 가 슴에 넘칠것이다.

본사기자

0

들에게 우리 인민들은 설명 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특성을

잃어버릴수 있다고 교시하시 였다. 일군들의 가슴은 한없이 벅

더욱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민속을 버리면 민족을

차올랐다. 력사를 돌이켜보아도, 세상 을 둘러보아도 민속을 경시하 고 버린탓에 민족성이 짓밟히 우고 사라져 민족적전통이란 말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것인가.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높이 모시 여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 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 을 런면히 고수하고 꽃피우며 민족의 존엄과 기개를 누리에 그토록 높이 떨쳐가고있는것

이다. 민속명절 정월대보름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교시는 일군들의 가슴속에 고귀한 진리로 력력히 새겨지

였다. 민속을 버리면 민족을 잃어

버릴수 있다! 본사기자 김 인 선

있어 우리 인민들이 예로

부터 좋아했다고, 그래서

자신께서 단고기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이야기

오랜 세월 천박하게 굳

어진 료리의 이름도 문화

성이 있고 료리의 특징이

잘 살아나게 새로 지어주

신 단고기국, 그것은 오

직 우리 민족의 고유하고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하시였다.

몸소 이름지어주신 단고기국

언제인가 위대한 는 단고기국은 고기국중 수령님께서 청류관을 에서도 제일 달고 맛이 현지지도하실 때였다. 식사칸으로 들어서시여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 시고 식탁에 차려놓은 단 고기국밥과 단고기보쌈을 비롯한 여러가지 단고기 음식들을 둘러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 군들에게 왜 단고기국이 라고 부르는지 아는가고

물으시였다.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 우수한 민족유산과 풍습 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 을 귀중히 여기시는 는 일군들의 심정을 헤아

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음이 담긴 부름이였다.

조선의 넋을 심어주시며

였다.

그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그 나 라 음식이 어떻던가, 먹기 괜찮던가고 물으시였다.

식이 맞지 않아 애로를 느끼다가 먹음직한 통배 추김치를 마주하고 기뻐 하던 일에 대하여 말씀 드리였다.그러면서도 장군님께서 몸소 전화로 대사관일군들에게 어떤 일 이 있더라도 김치를 담가 서 우리 예술단성원들에게 자주 가져다주라고 하신

당부가 생각나 흐르는 눈

주체 6 0 (1 9 7 1)년 3월 중순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외국공연을 마치고 돌아 온 예술인들을 부르시

그들은 다른 나라의 음

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그들을 정겹게 바라보 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무들이 이번 기회에 이 세상에서 자기가 나서자란 제 나라, 제땅이 제일이라 는것을 가슴속깊이 느꼈을 것이라고 하시며 조선사람 은 어디 가나 조선의 넋 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예술인들의 심장은 세 차게 고동쳤다. 조선사람이라면 누구 나 즐겨찾는 김치로 민족 의 얼, 조선의 넋을 심어

주신 위대한 장군님. 식탁에서 늘 마주하는 하나의 민족음식도 무심 히 대하지 말아야 하겠다 는 생각이 그들의 뇌리를

꽉 채웠다. 본사기자 한 영 민

교양사업 연 혁 소 개 실 을 룡천군 신압리당위원회에서 안의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자 는 결의를 다졌다.

는 연혁소개실을 잘 꾸려놓고 기들의 농장에 찾아오시여 농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서 그를 통한 위대성교양을 잘해나가고

를 리용하여 연혁소개실참판사 사랑과 은정을 다시금 돌이켜 업을 자주 조직하고있다.

연혁소개실참관을 통하여 리 교시를 무조건 관철해갈 불타

장원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알 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하여 세심한 가르치심을 리당위원회에서는 여러 계기 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보면서 농장에 주신 강령적인

고있다.

리안의 모든 농장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심 장에 새기고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 안고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혁신 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

채 히 성

요구일것이다.

니다.

었다. 한평생 혁명과 건설에서 주 체성과 함께 민족성을 확립하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언제나 민족 성을 귀중히 여기고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 하며 아름답고 고상한 우 리의 민족적전통을 계승발 전시켜나가도록 하고있습

LICH. » 은장도와 금반지, 누구나 이 말을 하면 세쌍 둥이,네쌍둥이들에 대하여

생각하군 한다.

하 지 만 그들이 받 은장도와 금반지에 깃든 사연 아안는 은 장도와 금 반지에 선 조들이 창조한 민속전통의 지에는 생일을 새겨넣되 은장 기뻐하신 우리 장군님,

계승발전을 위해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다심한 은정 이 얼마나 뜨겁게 어리 여있는지 우리 다는 알지 못

주체 7 2 (1 9 8 3)년 5월 어느날에 있은 일이다. 한 일군을 부르시여 우리 나라에서 세쌍둥이가 자주 태 여나는데 이것은 나라가 흥할 징조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전달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당 기관에

과업을 주어 세쌍둥이들에게

줄 기념품도안을 만들도록 하

과업을 받은 창작가들은 즉 시 기념품도안창작에 달라붙 었다. 며칠밤을 새워가며 모색하

시였다.

였지만 그들은 신통한 안을 찾아내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기념품도안 창작정형에 대하여 료해하신

도와 금반지 세개가 합쳐야 옹 근 출생년월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고, 그렇게 하면 세쌍둥이가 어려서 뜻하 지 않게 헤여져도 은장도와 금 반지를 가지고 자기 형제를 정 확히 찾아볼수 있을것이라고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그이의 교시를 전달받은 창 작가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 치 못하였다.

민족적특성과 정서에 맞 게 기념품을 만들도록 해주 시고도 천만번중 단 한번 있 을수 있는 일까지 헤아리시 여 생년월일까지 새겨넣도 록 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의 그 사랑은 얼마나 은혜로 운것인가.

그후 창작가들은 그이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첫째 은장도 의 칼날에는 출생년도를, 둘 째 은장도의 칼날에는 태여난 달을, 셋째 은장도의 칼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각 는 태여난 날을 각각 새겨넣

게 된 은장도와 금반지,거기 에는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자그마한 문화유산도 소중히 여기시고 빛내여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민족애와 자라나는 후대들이 민족의 슬기와 넋을 간직하 도록 하시려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후대관이 응축되여있 었다.

위대한 사랑속에 행복동이로 출생하여 복된 삶을 누리는 세 쌍둥이들은 아마 없을것이다. 오늘도 절세위인들의 사랑 과 은정이 비낀 은장도와 금 반지를 세쌍둥이, 네쌍둥이들 이 받아안고있다.위대한 태양의 영원한 축복속에 이

어버이수령님 찾아주신 이 땅우에 황금벌의 새 력사를 빛내여나가자

맞 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토지 개 혁 법 령 발 포 기 념 일 을

지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우선

티오균과 초무연탄으로 토양산

도를 낮추고 토양속에 있는 영

양원소들을 식물이 흡수할수 있

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논벼농

사에 유리한 토양조건을 갖추자

면 모든 포전에 여러가지 토양

개량제를 많이 내여 뿌리가 내

릴수 있는 깊이까지 토양산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자면 많

은 원가가 든다. 그러나 초무연

탄과 미생물을 함께 리용하면

적은 원가로 얼마든지 토양산도

를 낮출수 있었다. 초무연탄속

에 있는 류황은 물에서 증식하

는 티오균의 좋은 먹이원천으로

되였다. 그리고 티오균은 땅속

에서 물에 풀리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고있는 린화합물을 분해

하여 식물이 리용할수 있게 해

일군들은 이런 특성을 리용하

여 갱에서 나오는 물에 티오균

을 더 보충해주고 그것을 초무

연탄과 혼합해서 열흘동안 배양

시킨 후 논에 정보당 1~3t정

도 뿌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

난해에 벼뿌리썩음병의 피해위

험성이 있었던 제 1 작업반에서

높은 수확을 낸 경험을 적극 일

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였

다. 또한 람조류생물활성퇴비를

생산하여 대기중에 있는 질소를

땅속에 잡아 식물이 흡수할수

있게 하는 방법을 받아들이도록

집짐승배설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문제에도 힘을 넣었

사회주의대지에 승리의 만세소리 높이 울리게

력사적인 토지개혁법령발포 6 9돐을 맞으며 제땅을 잃으면 로 담보된다. 농장일군들은 이 또다시 노예가 된다는것을 더욱 뼈저리게 새긴 사리원시 미곡협 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혁신적인

이 사회주의대지에 승리의 만세 소리 높이 울려 황금벌의 새 력 필지별로 따져가며 유기질비 사를 빛내여나갈 일념으로 알곡 료를 실어낸 사실을 놓고보자. 증산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정보당 1 Ot이상의 논벼생산 량이 농장적인 평균실적이 아니 이들은 기름진 땅에 알찬 라 모든 포전의 수확고로 되게 이삭 주렁지워야 땅의 주인으로 하여야 한다. 농장일군들은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심장에 새기고 필승의 신심드높 농전투를 힘있게 내밀어 성과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 그러나 가을의 결실은 달랐 다. 계획대로 유기질비료를 실 어냈지만 오히려 지력이 낮은 제 4 작업반 포전의 수확고가 결과 부식질함량에서 차이가 났다. 비결은 다른 작업반과 달리 순수 진거름과 도시오수 를 따로 확보하여 실어낸데 있

주목되는것은 땅이 기름져야 총알같이 땅땅 여문 쌀로 나라 의 쌀독을 채울수 있다는것을 좋은 결실을 기대할수 있다는것 명심하고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과학적으로 작전하며 다. 이 사실을 놓고 일군들은 과 완강하게 실천해나가고있는것

논벼 정보당 1 Ot이상의 수확고는 비료가 아니라 지력으 유기질비료주는 체계를 세울 결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대 한

동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은덕에 보답할수 있다는것을

이 지력을 높이기 위한 봄철영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농사

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분

제, 먹는 분제를 원만히 해결

함으로써 적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을 짓부셔버

농장일군들은 전시식량증산

투쟁을 힘차게 벌리던 1950

년대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알곡증산투쟁을 벌릴 목표를 세

지펴올리고있다.

거두었다.

려야 합니다.》

웠다.

이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방도들을 찾아 실속있는 대책을 세워나갔다.

이런 기준을 세우고 필지별논벼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

지난해 농장에서는 1 Ot이상 의 소출을 내지 못한 필지들에 정보당 4 Ot이상의 유기질비료 를 정확히 내도록 하였다. 특히 새로 토지정리를 한 포전들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였다.

류달리 높았던것이다.따져본

이것은 토양의 특성에 맞게 부식질함량을 높일수 있는 유기 질비료를 내야 어느 필지에서나 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교훈이였 학적으로 지력상태를 정확히 밝 혀 그에 맞게 토양개량대책과

심을 굳히였다.

성과의 예비는 조직사업에 있고 힘은 군중에게 있는 법 일군들은 과학자, 기술자들과

의 련계밑에 토양분석자료에 기 초하여 유기질비료주기를 과학 적으로 할수 있는 프로그람을 개발하였다. 그것을 통하여 필 지별로 어떤 영양원소를 어느 정도 보장해야 정보당 수확고를 1 Ot이상 높일수 있다는 과학 적인 방도들을 찾아쥐였다.그 에 따라 작업반들에서 필지별로 부족되는 영양원소들을 충분히 보충할수 있게 유기질비료생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하

이 계획에 따라 작업반들에서 필지별유기질비료생산조직을 하도록 하였다. 작업반들에 거 름원천이 적었지만 필지별로 낼 유기질비료만은 집짐승배설물, 진거름, 도시오수를 가지고 생 산하여 정확한 량을 내도록 요 구성을 높이였다.

조직사업은 은이 났다. 작업 반들에서 필지별로 따져가며 세 운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해 모두가 떨쳐나 유기질비료 생산과 실어내기를 실속있게 진 행하였다.

미생물을 리용하여 지력을 높 일 방도를 찾고 성과를 높여나 가고있는것도 혁신적이다. 일군들은 거름원천이 적은 조

건에서 미생물을 증식시켜 토양 의 성질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어 축산작업반, 비육분조, 농장 원세대들에서 나오는 집짐승배 설물을 모두 수집하여 유기질복 합비료를 만들어 논에 내기 위 한 사업을 치밀하게 조직하였 다. 그것은 운반량을 줄이면서 도 필요한 영양원소를 종합적으 로 보충해줄수 있는 방도이기때 문이였다.

일군들은 생산기지를 꾸린데 맞게 린회토, 고회석, 갈탄버럭 등 각종 원소들이 들어있는 토 양개량제들과 집짐승배설물, 미 생물들을 확보하여 생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였다. 그 리고 알비료생산을 힘있게 내밀 어 작업반들에 공급하면서 축산 작업반에서 물거름도 생산하게 하였다.

이밖에도 일군들은 정보당 20t의 청풀을 밑거름으로 쓸수 있게 논에 유채를 심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종자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그리고 모내기전에 갈 아엎을수 있게 씨뿌리기적기를 바로 정하고 씨붙임을 기술적요 구대로 내밀도록 일정계획을 세

이렇게 일군들은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대로 이 땅을 영원한 사회주의대지로 가꾸어 나갈수 있다는 자각을 가지고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완 강하게 내밀어 올해 알곡생산목 표를 넘쳐 수행할수 있는 확고 한 담보를 마련하게 되였다.

온 성 군 일 군 들 의 사 업 을

땅에 대한 하많은 분석을 거듭하였다.그 과정에 추억을 불러일으켜주는 3월,소중한 이 땅을 또다시 빼앗으려는 미제 의를 돌리게 되였다. ▶ 와 남조선괴뢰들에 대한

━━ 적개심으로 대지도 분노 의 치를 떠는 이 시각 온 성군의 농업부문 일군들 과 근로자들이 씨뿌리기 지나에 다으면 반차를 가 준비에 더욱더 박차를 가 하고있다. 주목되는것은 한알한알의 종자가 다 그

대로 총알처럼 여문 이삭 으로 되도록 하기 위한 문제를 중시하고 작전과 실천을 면밀하게 해나가 고있는것이다. 경

김정은동지께서는 였다. 《농업부분에서는

종자분제를 중요한 고리로 틀어쥐고 종 자분제해결에 선차적 인 주목을 돌려야 합 LICH. »

뜻깊은 올해에 풍년낟 ▲ 가리를 높이 쌓자면 씨 뿌리기의 첫 공정인 종 자처리부터 과학기술적 으로 잘하여야 한다. 다수확은 종자에서 시작된다.

문제를 이렇게 세운 군의 일 군들은 지난 시기 이룩한 알굑 생산성과와 경험을 놓고 사색과

고농도후민산비료로 종자처리 를 진행하여 덕을 본 사실에 주

군에서는 이미 여러해전부터 농업과학원 함경북도농업과학분 원 과학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 에 지방에 흔한 풍화탄으로 고농 도후민산비료를 만들어 밑비료 와 잎덧비료로 리용하고있었다.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자 군에서 는 지난해에 고농도후민산비료 에 의한 종자처리방법을 60%

확실히 좋은 점이 많았다. 싹 틔우기률이 훨씬 높아지고 싹트 는 기일도 2~3일이나 앞당겨 졌으며 초기생육에도 좋은 영향 을 주었다. 이것은 그대로 높은 알곡증산성과로 이어졌다.

의 종자에 받아들이였다.

경험은 좋은 종자를 확보하고 품종배치를 정확히 하는것도 중 용하지만 종자처리를 어떻게 하 는가에 따라 알곡생산성과가 크 게 좌우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 었다.

다수확포전은 종자를 뗴여놓 고 생각할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일군들은 올해에 고농도후 민산비료로 모든 종자를 100% 처리할 목표밑에 생산계획을 1. 5배로 높이 세웠다. 그리고 작전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 며 원료확보와 생산준비를 드세

게 내밀었다. 여기서 잘한것이 있다. 우선 원료확보를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혁신적으로 한것이다. 지난 시기 군에서는 고농도후민산비료생산에 금강 약돌을 리용하여왔다. 그 금강 약돌은 많은 경우 도에서 보장 받고있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생산목표를 높이 세운것만큼 우에서 보장해주 기만을 앉아서 기다릴수 없었다. 일군들은 해당 연구사들과 협 동하여 금강약돌을 대신할수 있 는 원료를 찾아내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결과 군의 어느 한 지역에 흔한 응회암을 리용하면 금강약돌이 없이도 고농도후민 산비료의 효과를 충분히 낼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일군 들은 즉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켜 4 5 Ot의 고농도후민산비료생 산에 필요한 응회암을 끝까지

자체의 힘으로 확보해놓았다. 일군들은 나라의 긴장한 전력 사정에 맞게 생산준비를 예견성 있게 갖추어놓도록 하였다. 군 유기질복합비료공장에 원동기 를 미리 갖추어주어 풍화탄과 응회암분쇄를 제때에 질적으로 할수 있게 하였다.

목표가 뚜렷하고 작전이 면밀 한 전투는 승리하기마련이다. 지금 군에서는 매일 10여의 고농도후민산비료가 생산되여 종자처리준비가 잘되고있다. 본사기자 장은 영

요 한

안악군 대추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토지개혁 법령발포기념일을 맞으며 농사 차비전투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 키고있다. 남다른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의 자욱이 새겨져있는 귀중한 이 땅에 기 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목 표밑에 생명수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부분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 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 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 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지난해 백년래의 왕가물로 여 농장의 물원천은 크게 줄어 들었다. 그래서 지난해에 농장 에서는 6만여m³의 토량을 처리 하고 물길의 폭을 넓히면서 7개소에 수km의 물길을 완공하 여 적지 않은 물원천을 확보하

하지만 일군들은 여기에 만족할수 없었다. 이것만 가지 고 올해농사에 필요한 물을 100% 확보하였다고 장담하 기에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 았던것이였다. 더우기 당창건 7 0 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의 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는 영광의 땅에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자면

생명수이자 쌀이다. 따라서 물원천을 찾아 확보하는것은 올 해농사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 한 사업이다. 미제의 대결광기 를 쌀폭포로 무자비하게 짓뭉개 버리자면 더는 미룰수 없는 일 이다. 이 땅의 물문제는 주인들 인 우리가 책임지고 기어이 풀 어야 한다.

농장일군들은 이런 관점에서 100%의 물확보를 목표로 한 작전을 하고 그 실현방도를 찾아나갔다. 관리위원장 현정 수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포 전략도를 가지고 물원천을 찾 기 위하여 현지답사를 진행해

나갔다. 그 과정에 그들은 농장포전으 로 뻗어나간 물길에 주목을 돌 리게 되였다. 그것은 흙물길제 방의 흙이 물에 의해 흘러내려 물길의 폭이 절반으로 좁아지고 깊이가 얕아져 물길의 물통과능 력이 종전보다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던것이였다. 물길의 폭을 넓히고 깊게 파면 물통과능력이

은 실로 막대한것이였다. 신심을 가진 농장일군들은 즉 시 물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 였다.결과 9개소에 근 10km 에 달하는 물길확장공사를 하여 야 했다. 처리해야 할 토량만 도 수만m³나 되는 방대한 공사 였다.

높아져 여기서 얻게 되는 물량

즉시 긴급협의회가 열리였 다. 일부 일군들은 거름생산과 실어내기를 비롯한 당면한 농사

안악군 대추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차비를 진행하는 조건에서 이 공사는 어려울것 같다고 하였 다. 이때 리당비서 최정길동무 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 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 우리모두 열 백밤을 패서라도 기어이 물길확 장공사를 해제껴야 한다고 호소 하였다.

그리하여 온 농장이 한사람 같이 떨쳐나 물확보공사장마다 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해나 갔다.

일군들이 100%의 물확보 를 목표로 한 작전에서 또 한가 지 중시한것은 모판에 필요한 물원천을 찾아내는 문제였다. 그들이 잘한것은 지난 시기처럼 모판자리를 한곳에 정하지 않고 여러곳에 정한것이다.이렇게 모판자리마다 오묵을 파고 굴포 를 리용하면 얼마든지 씨뿌리기 와 모기르기에 필요한 물을 보 장할수 있어 좋았다. 더우기 좋 은것은 모내기철에 많은 물동량 을 나르지 않고도 적기에 모내 기를 진행할수 있는것이였다.

그뿐이 아니다. 일군들은 그 어떤 조건에서도 물을 풀수 있 게 작업반마다 발동기를 마련해 놓기 위한 사업을 예견성있게 내밀었다.

뜻깊은 올해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드높은 열의를 안고 물확보를 위한 사업을 빈 틈없이 짜고들어 성과를 거둔 이곳 일군들의 일본새는 농장원 들에게 큰 힘을 주고있다.

보시기자 박 철

량강도혁명전적지관리국 답사차사업소 부분당위원회 사업에서

백두산기슭에 이런 전투력있는 당조직이 있다

이런 전투력있는 당조직이 있다는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였다.

답사차사업소는 규모가 그리 큰 축이 아니다. 오히려 작다고 해야 할것이다. 하지만 거둔 성 과는 매우 크다. 모든 종업원들 특히 답사자들이 리용하는 뻐스 운전사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 풍모.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와 그쯘한 후방사업토대…

그 비결에 대하여 우리는 두 측면에서 찾아보게 된다.

하지 않았다.

강의와 보충강의를 통해 모든 운전사들이 언제 어디서나 정치 사상교양사업을 단위의 특성에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자니 많은 품 과 시간이 들었다. 두세명 지어 한명을 대상으로 학습강의와 강 연을 진행할 때도 있었다. 이런 사업을 통하여 운전사들모두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당정책을 환히 꿰들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5대 교양과 관련한 학습자료들을 카

> 하지만 부문당위원회는 이것 으로 그치지 않았다. 교양사업을 단위의 특성에 맞 게 보다 창조적으로 심화시켜나

드로 만들어 운전사들과 종업원

들이 학습에 리용하도록 하였다.

그 하나가 일군들이 운전사들 과 함께 차를 타면서 진행하는 사상교양사업이다.

운전사들이 항일혁명투사들 이 지녔던 숭고한 넋을 가슴깊 이 새겨안고 투사들과 한대오에 서 백두전장을 달리는 심정으로 충정의 운행길을 이어가도록 하 기 위해 진행한 이 교양사업의 실효는 컸다. 부비서 강천석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답사가 진행될 때마다 운전사들과 함께 운행길을 달리 며 그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격 식과 틀이 없이 진행하였다.

백두산지구에서 산다고 하여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저절로 무장되는것은 아니다. 수령과 혁명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친 항일혁명선렬들 의 넋을 이어 언제나 삶의 순간 순간을 빛나게 살아야 한다. 이 운행길은 단순히 도로가 아니 다. 우리 혁명의 명맥과 잇닿아 있는 피줄기라는것을 언제나 명 심하자. …

일군들은 운행길의 어려운 고 비들을 함께 넘고 헤치며 운전 사들의 심장을 이렇게 격동시키 군 하였다.

이렇게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사상사업을 참신하게 진행 한 결과 몇해전 어느 한 구역에 서 뜻하지 않게 산불이 일어났 사업을 짜고들었다. 을 때 종업원모두가 펼쳐나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들을 굳건 히 보위하는 높은 사상정신세계 의 소유자들로 자라날수 있었다. 백두의 넋과 기상이 차넘치는

속에 집단을 위하는 아름다운 소행도 높이 발휘되게 되였다. 산소발생기를 단 한달만에 새로 제작한 전룡길, 조내식동무들, 자체의 힘으로 많은 다이야와 부속품들을 마련하여 답사보장 에 이바지한 안철무, 마동수, 박 송환동무들…

종업원들의 사상정신세계가 새로와지니 단위의 전반사업에 서는 전례없던 성과들이 이룩되 게 되였다.

오늘의 부문당위원회에서는 후방사 업을 종업원들의 정신력발동의

중요한 열쇠로 틀어쥐였다. 우선 후방사업작전을 잘 짜고 들었다. 물론 지난 시기에 꾸려 놓은 후방기지들이 있었지만 그 덕을 보지 못하는 문제를 놓고 토의를 많이 하였다. 로력문제 가 제일 걸린 고리였다. 종업원 의 절반이 사시장철 로상에 있 는 운전사들인지라 그들을 동원 할수 없었던것이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 강천석동 무는 종업원들의 안해들로 가족 소대를 조직할것을 발기하고 이

그는 새로 조직된 가족소대원

모든 운전사들과 수리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이 한계단 높아졌 고 뻐스들의 수리와 보수를 자 체로 해나갈수 있는 수리기지들 도 튼튼히 꾸려졌으며 여러가지 대중운동도 힘있게 벌려 26호 모범기대영예상을 수여받는 영 예도 지니게 되였다. 얼마전에 사업소는 3대혁명

붉은기를 쟁취하였다.

운행길을 혁명의 피줄기를 지키는 성스러운 초소로 여기고 백두의 넋을 지니도록 종업원들 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참신 하게 진행한 결과라고 말할수 있다.

빨 찌 산 작 식 대 원 들

들에게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들려주면서 전우들의 식탁에 한가지라도 더 좋은 음 식을 놓아주기 위해 아글타글 애쓴 항일유격대의 작식대원들 처럼 살며 일해나가도록 교양사 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다.

가족소대원들이 분발해나섰 다. 가족소대는 사업소의 후방 사업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는 힘있는 력량으로 되였다. 소대 원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가족소 대장 리희경동무는 손끝에 피가 나도록 산나물을 채취하고도 식 사를 하는 전우들의 만족한 웃 음속에서 기쁨을 찾던 항일유격 대의 작식대원들처럼 투쟁하도

작업의 쉴참에는 오락회도 조 직하여 소대원들의 사기를 북돋 아주었다. 가족소대원들은 남편 들의 푸짐한 식탁을 항상 눈앞 에 그려보며 자기 터밭을 가꾸 듯이 부업밭을 정성들여 관리하

사업소의 일군들은 조직사업 을 짜고들어 수천평이나 되는 부업밭에 대한 비배판리를 잘하 도록 하였으며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정상화하였다. 또한 4 0 0 여㎡의 태양열남새온실 운영을 깐지게 하도록 하여 한 겨울에도 신선한 남새를 공급하 고 해마다 많은 집짐승들을 길 러냈다.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 업원들, 가족소대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여 떨쳐나섬으로써 덕 을 보는 튼튼한 후방기지가 마

의 전투력강화에 큰 작용을 하

이곳 부문당위원회 사업을 통

옳은 방법론을 찾아쥐고 완강하 게 밀고나가면 비약의 지름길을 달릴수 있다는것이다.

허 일 무 ¹ 집중하여 정초에 감탕파기를 와

광 포 오 리 공 장 에 서 온도보장, 감탕과 모래확보. 이것은 광포오리공장 일군들이 뜻깊은 올해의 축산물생산준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령도빌에 이미 꾸

에서 틀어쥔 요점이다.

려진 현대적인 축산기지들 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 감탕을 확보할수 있었다. 하겠습니다. 》 가금에서의 생산성은 알깨 주의 당역자 집에 모래들 우기실수률과 새끼오리기르

기에도 많이 관계된다. 그러 므로 필요한 온도를 정확히 보장해주는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였다. 일반적으로 새끼오리는 체 온조절기능이 약하여 일정한 人

기간 적합한 온도를 보장해주 지 못하면 발육에 지장을 준 다. 알깨우기 역시 온도보장 정도에 따라 실수률에서 차이 가 난다. 그래서 일군들은 이 문제를 중시하고 자체로 무동 력보이라에 의한 온도보장체 계를 세웠던것이다. 여러번 바꾸면 위생조건도 개 선할수 있다는것까지 타산하

다음으로 겨울에 감탕을 충 분히 확보하는것이였다. 여러가지 영양원소가 많이 들

어있고 오리가 즐겨먹는 감탕 는 사실도 중시하고 전투기간을 배합먹이에 보충해주면 축을 정하여 1 800여㎡의 산물생산성과가 높아진다는 문제에 모를 박았다. 그리고 호 수에 깔린 감탕을 보충먹이로 적극 리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도도 찾았다. 또한 력량을 총

닥닥 끝내도록 하였다. 여름철 에는 호수의 물이 흐르고있어 아무리 많은 품을 들여도 실적 은 보잘것 없었다. 그러나 이 시 국이 깔린 질좋은 속층감탕을 파낼수 있어기에 모

과 이틀동안에 350여m³의 수의방역사업에 모래를

찾아 실천한것도 긍정할만 하다. 오리는 물을 좋아하나 습 아 곳을 싫어하는 집짐등이 여서 장마철에 우리와 놀이

■ 장바닥이 눅눅하면 여러가지 병에 걸릴수 있었다. 물이 잘 스며들고 빨리 증발되는 모 래를 펴서 얼마든지 바닥을 건조하게 만들수 있었다. 해 === 빛에 단 모래는 소독에도 좋 았던것이다.

일군들은 바닥에 편 모래를 고 확보량을 정하였다. 또한 강하천의 얼음이 녹기 시작하 일군들은 비타민을 비롯한 🛖 면 류역에 쌓여있던 모래가 네리가지 여야워소가 많이 듣 💂 씨기여 위치도 주어들스 이다 씻기여 원천도 줄어들수 있다 모래를 확보하였던것이다.

온도보장, 감탕과 모래확보를 생산준비에서 긴요한 문제로 틀어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본사기자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러나 살림집들이 있던 자리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였기때문에 바닥흙에는 농작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리용 하여야 합니다.》

곡 산 군 명 암 협 동 농 장 에 서

령 도 자

생육에 좋은 질소를 비롯한 영 곡산군 평암협동농장의 일 군들이 지난해보다 높이 세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할수 있 는 방도를 모색하던 때였다. 사실 농장의 자연기후조건이 나 토양특성을 보면 농사에 유리하다고 볼수 없었다. 년 평균기온도 서해벌방지대보 다 낮았고 포전들은 물이 잘

더우기 등판에 위치하고있다 나니 거름원천도 매우 제한되 모든 포전을 기름진 옥토로

만들자. 이렇게 결심한 일군들은 불 巳 리한 조건에서도 질좋은 유기 질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여 높이 세운 알곡생산목표를 수 행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기로

빠지지 않는 특성이 있었다.

하였다. 유기질비료원천을 찾기 위 해 고심하던 관리위원장 류명 금동무는 일군들과 함께 농장 원들속에 들어갔다. 그 과정 에 이 지방에서 오래 생활한

로인들의 의견에 주목을 돌리게 되였다. 유기질비료원료로 저수지바 닥흙을 리용하면 어떻겠는가 하 는것이였다. 농장에는 2개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은 우리 인민들의 사상정신 생활과 경제, 분화건설의 모 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는 위력한 추동력 입니다. »

백두산지구에 가면 붉은기를 휘날리며 눈보라속을 뚫고 줄지 어 내달리는 뻐스들을 볼수 있다. 바로 이 뻐스들이 량강도 혁명전적지관리국 답사차사업 소 뻐스들이다.

지난 4 6년간 무사고주행길 을 달려온 이 사업소에 대한 취 재과정에 우리는 백두산지구에

운 행 길 과 이곳 부문당위원회 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점은 우선

맞게 잘 짜고들어 종업원들을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키 움으로써 단위의 전투력을 백방 으로 강화한것이다. 이 사업소의 운전사들은 답사 자들과 함께 거의 한해를 로상 에서 보내다나니 일과생활에 참

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하여 그들의 사상정신생 활에 공백이 생길수 있었다. 부문당조직에서는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하였다.

물론 운전사들이 사업소에 돌 아오면 그간 미진된 학습과제를 자체로 보충하게 할수도 있었 다. 하지만 부문당비서 김광철 동무는 그런 손쉬운 방법을 택

양성분이 많이 들어있을수 있다 는것이였다. 정말 저수지바닥 을 파보니 시꺼먼 흙이 40~50cm의 두께로 쫙

저수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건설

된지 오래지 않았다.

양성분함량이 매우 높았다. 른 저수지바닥도 파보았다. 그곳에도 역시 얼마 깊지 않

이것은 이전에 비해 많은 로력과 운반수단,연유를 절약하면서도 지력을 훨씬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 다음

었다. 천t의 저수지바닥흙을 마련하여

깔려있었다.해당 부문과의

일군들은 제3작업반에서 저수지주변에 현장지휘부를 전개하였다.그리고 모든 력량을 저수지바닥흙파기에 집중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땅을 기름지게 할수 있었다.

련계밑에 분석해본 결과 영 이것으로 얼마든지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만들수 있었 다. 신심이 생긴 일군들은 다

은 곳에 몇십년 썩은 흙이 있

■ 높일수 있는 좋은 유기질비 료원천이였다.

결과 한달 남짓한 기간에 수

황 철 민

빈틈없이 하였다. 온 농장 이 저수지바닥흙파기로 들끓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농사차비를 잘하고있다.

-연탄군 수봉협동농장에서-본사기자 찍음 온 실 에 서 의 술 전 습

정 주 시 신 봉 협 동 농 장 전습을 하고있는것이다. 제 1 작업반의 농장원들이 땅의 주인된 본분을 다할 열의

밑에 씨뿌리기준비에 힘을 넣고 있다. 특히 모든 분조들에서 올해 영양단지모재배방법을 받아들 이기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남다른것은 농장 원들이 온실에서 영양단지모재 배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기술 숙력과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기

영양단지모재배방법을 받아 생산을 늘일수 있다. 특히 바람 막이바자와 나래, 말장, 활창대 가 적게 들어 그것을 마련하는 데 들던 일부 로력을 다른 농사 일에 돌릴수 있다. 그런데 눈에 는 익고 손에는 설다는 말이 있 듯이 영양단지를 만드는 일은

술적요구대로 할수 없다. 이로 부터 작업반에서는 기술전습을 들이면 물을 적게 쓰면서 알곡 조직하였다. 농장원들은 온실에 서 제손으로 직접 여러가지 재 료를 섞어 영양단지들을 만들었 다. 이러한 일은 한두번 해보면 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농장원 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온실 에 찾아와 모판만들기와 씨뿌리

기를 숙련하고있다.

로농통신원 립 영 남 물문제를 기어이 해결하여야 하

록 그들을 이끌었다.

련되게 되였다. 최근 사업소가 거둔 모든 성 과의 바탕에는 바로 종업원들을 위해 헌신해온 작식대원들의 숨 은 노력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후방사업성과는 그대로 단위

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다. 단위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백두산지구에 이런 전투력있 는 당조직이 있다는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세포등판을 인민의 만복을 꽃피우는 사회주의대지로 전변시키리

성, 중앙기관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 세포전역이 끓는다. 드넓은 등판을 뒤덮을듯 날마다 늘어나는 소석회와 흙보산비료무지들에도, 대상건설장 마다에 무드기 쌓이는 건설자재들에 도 당의 구상따라 세포지구를 인민 의 만복을 꽃피우는 사회주의대지로 전변시키려는 군인건설자들과 돌격 수 있다는 신심이 확고해졌다. 대원들의 혁명적신념, 드높은 애국의

열정이 비껴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충직하 게 받들어나갈 때 불가능이란 없으 며 오직 승리만을 안아올수 있다는 억척불변의 진리를 심장깊이 새겨안 은 축산기지건설자들이기에 전투장 마다에서 사람들을 경탄시키는 기적

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포등판을 개간하여 축산기지 로 꾸리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작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치며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 키자》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중앙현장지휘부와 각 사단, 려단,

원들의 심장은 세차게 높뛰였다. 모두가 로작의 구절구절을 자자구구 새겨갈수록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얼마든지 우 리 힘과 기술로 우리 식의 현대적인 대규모축산기지를 하루빨리 건설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대로 세 포등판을 인민의 만복을 꽃피우는 사회주의대지로 훌륭히 전변시키시 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구상을 기어이 실현할 승리의 신심 드높이 비약의 큰걸음을 내짚는 이 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개척자들은 뜻깊은 올해에 계획된 토지개량, 풀판, 바람막이숲조성 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리고 살림집,집짐승우리, 공공건물 건설을 비롯한 건축공사와 도로건설 을 무조건 끝내고 조국해방과 당창 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일 목표밑에 총공격전에 진입하였다.

> 과업은 방대하고 전진을 가로막는 고난과 시련도 엄혹하다.하지만 이들은 지난 800여일동안 횡포한 눈바람,비바람을 자력갱생의 불바람으로 쳐갈기며 승리해온 나날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대오의 앞장에서 질통을 지고 달리 있는 한 최후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 이라는 철리를 심장으로 새겨안았기 에 두려움없이 맞받아 뚫고나갔다.

드넓은 세포지구의 전투장마다에 서 불꽃튀는 전투가 더욱 치렬하게 벌어졌다. 닭알에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를 깰수 있다는 우리 당의 사상 을 틀어쥐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사 상의 힘, 정신력을 총발동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 있는 정치일군들이 언제나 대오의 기 수가 되여 뛰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라고 하시 는대로만 하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관철은 문제없다는 확고한 관점 과 립장을 가지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토지개량전투 와 건설자재준비에 온넋을 깡그리 바 쳐가고있는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 들의 경쟁열의는 또 얼마나 높은가.

군인건설자들이 당의 강성국가건 설구상을 실현해나가는데서 언제나 기수, 돌격대가 될 신심드높이 단숨 에의 공격정신으로 대오의 앞장에 섰 다. 수령의 유훈판철전, 당정책옹위 전에로 대중을 총궐기, 총돌격시키며 는 인민보안부려단 지휘판들의 배심 도 만만치 않지만 그뒤를 따르는 군 인건설자들의 잡도리 또한 간단치 않 다. 군무생활에서는 혁명동지이지만 일에 들어서서는 양보를 모르는 경 쟁자들인 그들모두가 발목을 치는 눈 길을 헤치며 매일 수백kg씩의 많은 유기질비료를 운반하고있다. 대상건 설에서 단연 앞장설 결심을 품고 전 시수송을 목숨바쳐 보장한 화선용사 들의 그 투쟁정신으로 한달동안에 수 백m³의 목재와 수천m³의 건설자재를 단숨에 운반한 자동차운전사들이 새

토양개량제생산에 떨쳐나선 돌격 대원들이 집단적혁신으로 련일 높은 실적을 기록해가고있다.

기적창조의 수송길을 계속 힘차게 내

달리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선렬 들이 피흘리며 목숨바쳐 지켜낸 한치 한치의 땅을 기름지게 가꿀 각오로 모두가 구슬땀을 바쳐갔다. 홰불로 어 둠을 밝히며 한달동안에 수백t씩의 니 탄을 캐낸 각 도려단의 돌격대원들, 산을 허물며 석회석을 까내여 소석회 생산에서 혁신을 창조한 황해북도려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고있는 있기마련이다. 오래동안 집을 떠나 인민봉사총국, 보건성돌격대를 비롯 한 성, 중앙기관 돌격대원들…

과학기술은 사회주의건설의 기관차라고 한 당의 뜻을 받들고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 일군 들과 돌격대원들이 풀판조성과 기지 운영준비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 을 해결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 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해발높이가 각이하고 지형이 복잡 하며 기후차이가 심한 조건에 맞게 먹이풀과 먹이작물배치를 적지적작 의 원칙에서 잘하기 위해, 지대적특 성에 맞는 비배관리방법을 완성하여 그 생산량을 늘이기 위해서, 우량품 종의 풀먹는집짐승을 많이 육종하며 인공수정방법을 현실에 도입하여 축 산물생산의 돌파구를 열기 위하여 이 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 렸다. 만족을 모르고 더 높은 목표밑 에 오늘도 열정에 넘쳐 기술적문제 들을 해결해나가고있는 이들의 온몸 에서는 창조적지혜가 끝없이 샘솟고 있다.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는 곳에는 언

어렵고 힘든 건설작업을 하는 근로 자들을 혁명전우, 동지로 귀중히 여 기고 자애깊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생 활의 구석구석을 따뜻이 보살펴줄데 대한 당의 뜻대로 모든 단위 일군들 이 후방사업과 문화정서생활조직에 큰 관심을 돌리고있다. 그리하여 집

짐승들을 많이 길러 식탁이 푸짐해

지고 노래보급과 체육경기, 혁신자축

하모임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것이

돌격대원들의 일상생활로 되였다. 이런 미더운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이 련일 세차게 일으킨 새 기적,새 기록창조의 열풍이 있어 세포지구 축 산기지건설장에서는 한달동안에 1 0여만t의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생 산하여 포전에 실어내였으며 목재, 혼석을 비롯한 많은 건설자재들을 수

적성과들을 거두었던것이다. 무엇이 이런 혁신,이런 비약을

송하면서 축산물생산준비에서 혁신

안아왔는가.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에

단 청년돌격대원들, 집짐승배설물로 제나 랑만과 희열로 가득찬 생활이 보답이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를 어찌 당의 대자연개조구상실현의 개척자라 고 하겠습니까. 그 어떤 조건에서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당정책 을 결사관철하겠다는 혁명적신념과 투지, 배짱을 지니고 하루빨리 세포지 구 축산기지건설을 완공하겠습니다.》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에 대한 열렬한 보답의 마음,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 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 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려는 굳은 각 오. 바로 이것이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에서 날마다 기적과 혁신이 일 어나게 하고있는 비결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뜻이 어려있고 선렬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는 귀중한 조국땅을 한치 도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인민들의 행 복이 꽃퍼나는 풍요한 대지로 전변시 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 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세포전역이 끓는다. 용암처럼 세차게!

> 글 본사기자 정 영 철 사진 본사기자 림 학 락 본사기자 전성 남







나 래 치 는 백 두 의 칼 바 람 정 신 이 전 투 장



낮 과 완 강 한 밥 이 따 로 없 는



드 세 찬 함 마 전 으 로





로 양 조 건 에 맞는 질 좋은 유 기 질 비 료 생 산 을 힘 있 게



축 산 불 생 산 에 서 과 학 화 , 집 약 화 의



혁 신 자 로 된 기 쁨



반제계급교양을 실정에 맞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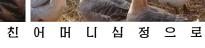




불라는 조국애로 잠 못 드는 밥



혁명적랑만과 희열이 넘치는 생활



함께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성을 귀중히 여길줄 모르고 조상전래의 풍습도 인민들의 생활감정도 모르는 사람은 참다운 혁명가, 애국자 가 될수 없습니다.》

민속명절인 정월대보름을 하 루 앞둔 어제 출퇴근길에서, 일 터와 마을들에서 이런 목소리들 이 들려왔다.

《래일 달이 환히 뜰가요?》 오늘은 정월대보름이다.

이날을 앞두고 많은 사람 들의 관심은 한해중 제일 크고 밝다고 하는 대보름달에로 쏠

민속명절의 하나인 정월대보 름날에 우리 인민은 찰밥에 꿀, 참기름, 밤, 대추, 잣 등을 골고 루 섞어 쪄낸 영양가높은 약밥 과 오곡밥, 9가지 마른나물반 찬, 엿, 복쌈 등 맛있는 명절음 식을 해먹었다. 부름깨기라는 굳은 열매를 먹는 관습도 있고 홰불놀이, 쥐불놀이, 연띄우기, 바줄당기기를 비롯하여 오랜 세 월 전해져온 여러가지 민속놀이 들도 있다.

하지만 정월대보름명절을 상 징하는 가장 중요한 풍습은 달 맞이이다. 먼 옛날부터 우리 민 족은 음력 1월 보름날 저녁이 면 자기 고향마을의 주변언덕이 나 산에 올라 쟁반같이 뗘오르 는 둥근달을 바라보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달맞이풍습을 창 조하고 이어오면서 정서적인 생 활을 하여왔다.

올해의 정월대보름 전날인 작은보름 점심에 국수를 맛있 게 들면서 래일 아침엔 귀밝이 술도 한잔씩 하자고 못내 흥겨 워하는 남정네들도, 다음날 민 속명절에 쓸 갖가지 음식감들 을 사들고 돌아오는 녀인들도

위대한 시대의 래일 저녁 대보름달이 환히

흘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한 이 야기로 꽃을 피운것은 바로 그래서이다.

《아마 뜨겠지!》라고 배포 유한 대답을 하는 로인들도 있 고 정월대보름달맞이를 동무들 과 함께 하자고 약속했는데 달 이 환히 안뜨면 어쩌나 하고 벌 써부터 발을 동동 구르는 처녀 들도 있다.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었다. 달이 환히 뜨고 안뜨고는 그때 가서 볼일 이고 달맞이를 어디에 가서 하 려는가고.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일 하는 방직공처녀들에게 달구경 하러 어디에 가려는가고 물어보 았더니 그들은 한목소리로 대답 하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동 강반에 일뗘세워주신 우리 로동 자합숙의 제일 높은 층에 올라 달맞이를 하겠습니다.》

금시 눈앞에 훌륭하게 일떠선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 숙이 안겨온다.

지난 시기에는 대보름날 저녁 이면 모란봉이며 대성산 등 시 안의 마음에 드는 곳을 향하여 서둘러 가던 방직공처녀들이 올 해에는 궁궐같은 보금자리인 자 기네 로동자합숙의 층계를 척척 올라 온 평양시가 한눈에 바라 보이는 곳에서 달구경을 하겠다 는것이다. 얼마나 좋은가.

절세의 위인들의 동상을 높이 모신 수도의 만수대언덕과 공업 도시 함흥의 동흥산언덕을 비롯 하여 뜻깊은 곳에 가서 정월대보 름의 달맞이를 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녕변의 약산동대와 동해의

명승 칠보산과 같이 자기 고장의 경치좋은 굣들에 올라 달구경을 하리라고 벼르는 사람들도 있다. 원산시의 한 주민은 이렇게

《우리 가족은 이번 대보름날 마식령으로 가자고 합니다. 세계일류급스키장에서 종일 스키도 타고 우리 원수님께서 몸소 오르시였던 삭도도 타보고 저녁에는 대화봉에 올라 달맞이 를 하렵니다. 천연산악지대에서 대보름달구경을 할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입니다.》

수도시민들은 문수물놀이장 이며 인민야외빙상장, 류경원들 에 가서 즐거운 하루를 보낸 후 조선의 문명이 날로 더욱 아름 답게 꽃피는 대동강가에서 환희 로운 달맞이를 할수도 있고 인 민군부대 어촌마을의 어로공들 은 황금해의 자랑찬 력사가 시 작된 정다운 포구에 서서 바다 물결우에 둥실 뜬것만 같은 대 보름달을 가슴벅차게 바라볼수 도 있을것이다.

그렇게 정월대보름의 뜻깊은 달맞이를 하면서 온 나라 인민 은 무엇을 생각할것인가.

선조들이 남긴 옛 기록에는

우리 민족 남녀로소가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좋아하고 즐겨 맞이한 정월대보름의 달맞이풍 습가운데는 달구경을 하면서 자기 소원이 성취되기를 빌기 도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그해 의 정월대보름달을 먼저 본 총 각에게는 달처럼 환한 처녀와 짝을 뭇는 기쁜 일이 생기고 자 식이 없어 안타까와하던 부부 에게는 옥동자, 옥동녀가 태여 나기도 한다는것이다. 놋쟁반같

이 크고 환한 대보름달을 보며

그 달속의 계수나무를 찍어다 가 초가삼간을 짓기 바란 사람 들도 있고 달나라 옥토끼가 찧고찧는다는 약절구의 약을 얻어다가 앓고계신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드리고싶어한 사 람들도 있었을것이다.

전변과

하지만 그 소박하고 절절한 소원들이 정녕 풀리였던가. 백성들의 행복과 앞날을 지켜 주고 돌보는 손길이 없어 저 하 늘 먼곳에 떠있는 달에 간절한 소원과 기대를 얹을수밖에 없었

던 우리 민족이였다. 해방전의 한 시인은 정월대보 름날의 달맞이광경을 두고 이렇 게 노래하였다.

정월대보름날 달맞이 달맞이 달마중을 가자고 새라 새옷은 갈아입고도 가슴엔 묵은 설음 그대로 달맞이 달마중을 가자고!

한해 또 한해 대보름달을 보며 빌고빌어도 종시 풀래야 풀수 없 었던 마음속소원들을 우리 인민은 과연 어떻게 풀게 되였던가. 인간의 참된 존엄과 행복, 아

름다운 미래 ! 정녕 인민의 그 간절한 소원 을 풀어준것은 정월대보름날의 밝은 달도, 밤하늘의 무수한 별 들도 아니였다.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의 참모부인 조선 로동당을 창건하시고 참다운 인 민의 정권인 공화국을 일뗘세우 시였으며 이 땅우에 철저히 인민 을 위한 정치가 실시되도록 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높은 뜻에 의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인민의 크고작은 소원들이 하나

즐겁게

달을 보며 바란다고 하여 그 소 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것을 우 리 인민은 이미 깨달은지 오랬고 위대한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갈 때 행복이 오고 희망이 꽃픾다 는것을 누구나 잘 알고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 인민 은 정월대보름날이면 변함없이 달맞이를 하고 밝은 달을 보면 서 마음속에 품은 소원을 이야 기한다.

그것은 정월대보름달맞이풍 습에 예로부터 달을 사랑하고 휘영청 밝은 달밤의 그윽한 정 서를 몹시 좋아하며 즐긴 우리 인민의 오랜 민속전통과 생활정 서가 비껴있기때문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유구 한 력사와 전통을 한생토록 사 랑하시고 지켜오시였으며 우리 인민의 오랜 감정정서가 깃든 생활풍습 하나도 귀중히 여기시 며 대대손손 발양시키도록 하시

맞이한

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민족애의 정신을 정히 받들고 활짝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아래 오늘도 즐겁 게 맞이한 정월대보름,

우리 민족의 력사와 더불어 대대로 내려온 소중한 그 풍습 을 지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저녁이면 달맞이를 하러 갈 준 비를 서두를것이다.

누구는 눈부신 축산기지의 래 일을 약속하는 세포등판의 언덕 으로, 누구는 전선지대 무릉도 원인 철령아래 사과바다의 전망

정월대보름

대로! 지난해 대동강반의 아름다운 돛배같은 멋쟁이고층살림집으 로 이사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한 교육자는 말한다.

《이해의 대보름달맞이는 구 름우에 둥실 솟은 우리 집에 척 앉아서 하자는것입니다.》

결작인 그의 이야기에 우리 가슴도 한껏 부푼다. 그 얼마나 장관이라.

그런 모습들이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있는 룡흥 네거리에서도, 은정구역의 위성

과학자주택지구와 은하과학자 거리, 평양육아원과 평양애육원 에서도 펼쳐지리라.

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솟은 곳곳에서 우리의 당원들 과 근로자들이 절세위인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해 마다 거창한 전변을 이룩해가 는 희열과 랑만, 긍지와 자부심 을 노래하며 정월대보름의 즐 거운 저녁을 보내려니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민속명절인가.

바라노니 대보름달이여, 높이 떠다오. 크나큰 행복과 아름다 운 희망으로 가득찬 이 땅을 밝게 비쳐다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속에 있 어본적 없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희한한 전변을 거울처럼 환히 비 쳐 온 세상에 전하여다오.

본사기자 허명숙



창전거리에서

본사기자

떠받드는 재보를

개성시민족유산보호관리소 종업원들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민족의 성원이라면 누구

나 민족문화유산을 보존관리 하는 사업에 애국의 마음을 바 쳐야 합니다.》 개성시민족유산보호관리소의 종업원들이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민족유산보호판리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소장 김철만동무와 종업원들 은 민족유산보호관리사업이 가 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

각하고 맡은 일을 주인답게 책 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력사유적들에 대한 관리사업에 헌신의 땀을 바쳐가고있는 작업 반장 고일남동무와 유명천동무 를 비롯한 작업반원들, 문화유 적들을 원상대로 보존하기 위한 일에 서로의 지혜를 합쳐가는 작업반장 양영일동무와 양정수 동무를 비롯한 작업반원들, 수

십년간 민족유산보호관리사업

에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온 김

석초동무는 또 어떠한가. 어느해 여름 깊은 산중의 한 절간을 보수할데 대한 과제가 제 기되였을 때였다. 당시 당세포비 서로 일하던 김석초동무는 그 과 제를 자기가 책임지고 작업반원 들과 함께 해낼것을 결심하였 다. 기와며 목재, 진흙 등 자재를 등에 지고 절간이 자리잡은 곳으 로 가자니 몹시 힘겨웠다. 목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서는 겨불내가 나고 다리가 후들 후들 떨렸다. 그러나 김석초동무 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그날 김석초동무는 지친 기색으로 자

> 이렇게 말하였다. 《난 일이 힘들 때마다 관음사 를 찾으시였던 어버이수령님을 생 각하군 하오. 그날 몸소 험한 오 솔길로 오르시여 관음사를 돌아보 시며 우리 선조들의 예술적재능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물들을 잘 보존할데 대한 간平한 교시를 주시지 않았소. 이건 우리모두가

기를 바라보는 작업반원들에게

받아안은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아니겠소. 》 그의 말에 리를 숙이였다. 그리고 생각하 였다. 숭양서원, 남대문 등 시 안의 수많은 문화유적들에 그 의 진한 땀이 얼마나 많이 스며

있는것인가. 언제인가 관리소의 종업원들 이 대흥산성주변에 대한 정리작 업을 할 때였다.

성가까이에 있는 자그마한 잡판목의 뿌리마저도 말끔히 걷어내느라 모두가 걸싸게 일 손을 놀리였다. 그들속에 김석 초동무도 있었다. 땀이 비오듯 했으나 일손을 놓을줄 모르는 그에게로 관리소에서 연구사로 일하는 김진석동무가 다가왔 다. 그는 김석초동무를 이윽토 록 바라보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십년 간 자기의 일터를 순간도 비우

지 않고 성실히 일해온 참된 당 원이였다.

《이젠 나이도 적지 않은데 몸을 돌보며 일하는것이 좋겠습 니다.》

그러자 김석초동무는 허리를 퍼며 웅건히 뻗어간 대흥산성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리속에는 이 곳을 찾으시여 성을 아주 잘 쌓 았다고, 우리 선조들은 기계도 없이 이런 큰 성을 쌓았다고, 이 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조국에 대한 사랑이며 애국심의 표현이 였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이 되새겨졌다. 김석초동무는 조용히 뇌이였다. 《저 성벽도 주추돌이 든든해 야 굳건한것이 아니겠소. 나도 한생 나라의 귀중한 재보인 민 족문화유산을 떠받드는 주추돌

로 살고싶은 마음뿐이요.》 이것은 관리소종업원들의 한 결같은 심정이였다. 지난해 10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작 《민족 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 사업이다》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관리소의 종업원들은 민족유산보호관리사업에 지혜 심장을 끓이였다.

그 불타는 열의는 오늘 시안 의 문화유적들을 찾아 걷고 또 걷는 관리소종업원들의 실천으 로 적극 이어지고있다.

본사기자 현경철

꽃의는

정월대보름도 우리 민족이 오 래전부터 쇠여온 민속명절이라 어느 집에서나 명절맞이로 바쁜 것은 가정주부들이다.

사리원시 신흥 2동 6 0 인민 반 최은실동무도 그런 주부들중 의 한명이다. 이 가정에서는 명 절날뿐만아니라 일상적으로도 민속음식을 즐겨해먹군 한다. 명절음식준비에 여념이 없는

어머니곁에서 고사리, 도라지, 가지 등 마른 음식감들을 손으 로 짚어보던 유치원에 다니는 딸이 이렇게 물었다. 《어머니, 전번 설명절날에는

떡국을 해먹었는데 이번 정월대 들어먹나요?》

어린 딸의 물음에 은실녀성 은 얼굴에 웃음을 담고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정월대보 름날에 오곡밥과 여러가지 마 른나물을 해먹게 된 유래에 대 해서 차근차근 알기 쉽게 이야

가정의

기해주었다. 옆에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던 소학교에 다니 는 맏아들이 대보름날에 해먹 는 민속음식이 또 있다고 하면 서 유명한 약밥이며 복쌈, 엿 을 비롯하여 정월대보름명절 음식들을 런속 꼽아가는것이

였다.

놀라움을 안고 바라보는 어머

정월대보름 전날밤이였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있었 지만 정월대보름날 동무들과 함 께 하늘높이 띄울 연을 만드느 라 평천구역 륙교 2동 67인

래도록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평천구역 부흥초급중학교에 다니는 강은혁학생은 올해 설 명절을 맞으며 시적인 민속놀 이경기에 참가하여 종목별경기 인 연띄우기경기에서 우승을 하였다.

니에게 아들은 흥이 나서 이렇 게 말하였다.

《우리 선생님이 알려주었어 요. 어머니, 난 우리 민속음식이 제일 좋아요.》

《옳은 말이다.내 나라의 땅 에서 자란것으로 만든 우리 음식이 제일이구말구.》

최은실녀성의 얼굴에도, 자식 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함뿍 어 리였다.

애 국 심 고급중학교에 다니는 형과 함께 송골송골 땀까지 흘리며

연을 만드는 은혁이를 아버지도 도와나섰다. 연을 만들면서 바람방향과 세 기에 따라 연줄을 당겼다 늦추 는 묘리를 알려주던 아버지는

은혁이에게 물었다. 《정월대보름날에 진행하는 민속놀이에는 또 어떤것들이 있 는줄 아니?》

아버지의 질문에 은혁이는 대 답했다. 달맞이, 쥐불놀이, 홰불

놀이, 탈놀이, 바줄당기기…

그중에서 아이들속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민속놀이는 연띄우 기였다고 대답하는 은혁이를 대 견스레 바라보며 아버지는 말하 였다.

작 업 반 장

정월대보름이 하루하루 다가 올수록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제 9 작업반 반장 리정렵동무의 생각은 깊어만 갔다.

그도그럴것이 올해 정월대보 름날이 토지개혁법령발포기념 일과 일치하였던것이다.

토지개혁의 실시로 우리 농민 들을 땅의 영원한 주인으로 되 게 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이 땅의 토지를 사회주의대지답게 변모시키기 위한 대자연개조사 업인 토지정리를 단행하시여 농 촌문제해결의 휘황한 미래를 굳 건히 담보해주신 위대한 장군님 의 현명한 령도가 아니였더라면 어찌 우리 농민들이 해마다 뗘

력사와 풍습을 잘 아는 사람이 커서 애국자가 된단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

며 은혁이는 정월대보름날에 띄울 연을 더 훌륭히 만들어갔다.

《옳다. 어려서부터 민족의

결 심 0 꿈과 희망을 담을수 있었으라.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날로 몰라보게 변모되여온 청산리의 어제와 오늘을 돌이켜보는 리정 렵동무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

랐다. 예로부터 정월대보름날 우리 인민들이 환한 보름달을 바라보 며 자기들의 꿈과 소원을 속삭 였듯이 리정렵동무의 마음속에

도 새 결심이 넘쳐났다. (올해농사에서 또다시 통장훈 을 불러 10월의 대축전장에

뗫뗫이 들어서리라.) 이것은 리정렵동무가 뜻깊은 민속명절을 맞으며 굳게 다지는

마음속결의였다.

본사기자 리건일

와 열정을 다 바쳐갈 열의로

《우리도 학부형입니다》

지난해 1 2월말 순천시 강안 동 63인민반에 사는 영예군인 정일웅동무의 집으로 순천시인 민보안서 아래단위 인민보안원 들인 김룡식, 서철남, 장성철동 무들이 영예군인의 아들과 함께 들어섰다.

《진범이가 겨울방학을 왔습

그들과 어울려 허물없이 이야 기도 나누는 아들을 보는 정일 웃동무의 눈앞에는 못 잊을 추

1 0여년전 특류영예군인이 아들을 보았다고 그토록 기뻐하 며 애기옷들과 산모의 영양제까 지 한가득 안고와 축하해주던 일들이며 그들의 각별한 관심속 에 아들이 유치원과 소학교를 거쳐 금성제 1 중학교에 입학하 던 일…

륜 지난 여름방학때에도 아들에 게 학용품과 식료품도 품들여 마련해주는 그들을 보며 영예군 종업원들이 지성을 바쳐왔던 인은 뜨거운 눈물을 지었었다. 가. 남경숙, 박경철, 한금향, 박

말하군 하였다. 《모두가 화목한 대가정을 이 루고 사는 내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진범이의 학부형 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이렇게

첫걸음에 비낀 지성 지난해 초겨울 어느날 대동강 구역 사곡 1 동에서 사는 리명근 동무의 집은 수많은 사람들로 흥성이였다.

여러가지 생활용품들을 한가 **득 받아안은 리명근동무의 눈에** 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였 다. 어린 나이에 뜻밖에 부모를 잃은 그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동강은하피복공장에서 사회 생활을 시작한것은 그해 봄이였

햐 다.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뗴는 그에게 얼마나 많은 일군들과

순금, 김영순…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그날부 터 그가 받아안은 혈육의 정은 친부모의 사랑그대로였다. 바로 그 손길들이 얼굴에 그늘이 질 세라 일터에서 진행되는 체육경 기들에도 적극 내세우며 떠받들 어주었고 오늘은 또 이렇게 추 울세라 그를 따뜻이 보살펴주고 있었던것이다.

리명근동무는 그날 정에 넘친 눈빛들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아버지, 어머니, 이 아들은 고마운 품속에서 보람찬 사회생 활의 첫걸음을 뗴였습니다. 마 음껏 나래를 펼쳤습니다.)

본사기자 김 진 명 찍음

신 현 규



품속에서 배움의 나래를 활 짝 꽃피워간다.

-정일봉고급중학교에서-

오르는 정월대보름달에 자기의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키워

주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의 품속에서 사는 우리 시대 사

람들은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

운 인간들인가. 대판군 로동자처녀의 밝은 웃 음을 되찾아준 림현단, 리춘 일동무들과 두일령의 최명 화, 류옥희부부, 봉산군산림

경영소의 산림책임감독원 박 경남동무…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애젊은 나이 에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 운 애국자들이라고, 금은보 화에도 비길수 없는 보배들

이라고 값높이 내세워주신

전쟁로병들의 친자식이 되여

진정을 다 바치고있는 아름

다운 사람들의 이름도 이들 과 나란히 하고싶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보석이 땅속에 불혀있

어도 빚을 잃지 않는것처럼 애국의 마음은 그것이 비록 크지 않아도 귀중한것이며 언제나 아름다운것입 LICH. » 전쟁로병들을 물심량면

0

01

으로 도와주고 혈육의 정 으로 보살퍼주고있는 사람 들속에는 순안구역 석박초 급중학교의 일군들과 교원 들도 있다.

학교안의 일군들과 교직원 들은 석박동 76인민반에서 사는 전쟁로병 엄기대로인세 대를 수년세월 돌봐주고있다.

학교의 일군들인 리영남, 신 동선동무들과 교원 박화순, 박 미경동무들은 후대교육사업으 로 바쁜 속에서도 매해 엄기대 할아버지와 오근환할머니의 생 일은 물론 여느 날들에도 자주 찾아가 성의껏 준비한 여러가지 음식들과 생활필수품들도 안겨 주군 한다. 이들은 엄기대로인 이 4 년동안 하반신마비로 누워

있는것이 안타깝다고 하면서 치 료를 잘해서 대지를 활보하게 해보겠다며 여러가지 약재들과 함께 로인의 구미에 맞는 음식 들도 해오고 병마와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신심도 안겨주면서 로 인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 고있다. 이들뿐이 아니다. 순안구역 석박동 77인민

반에서 사는 장현숙동무와 그의 남편 박세준동무도 전 쟁로병의 친혈육이 되여 적 극 도와주고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언제

인가 텔레비죤수상기가 고장나 엄기대로인이 안 타까와한다는것을 알고 장현숙동무는 딸이 아버 지의 고충을 보면서 가만 있겠는가고 하며 남편과 토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 해주었다는것이다.

하기에 오근환로인은 고 마움의 눈굽을 적시며 늘 이 렇게 말한다.

《어쩌면 이들의 정신 세계가 이처럼 훌륭하고 아름다울수 있습니까.황 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라 면 누구 하나 거들뗘보지 도 않을 늙은이인데 고마 운 우리 사회에서는 그 어 디 가나 존경을 받으며 삽 니다. 정말이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사 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

가 제일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면모의 일부분일따름 이다.

이런 참되고 아름다운것이 깃 드는 곳은 마음이다. 고운 마음 에 고결한 의리와 량심, 고상한 도덕이 있으며 그것이 당과 수령에 대한 뜨겁고 열렬한 충정으로 승화되고 발휘되는것 이다. 우리 사회는 이렇듯 아름 다운 마음을 지닌 사람들의 화 원이다.

리 신 향

제30차 평양건축종합대학과학기술축전 진행 제30차 평양건축종합대학 는 과정에 많은 성과들을 이룩 한 유희시설들의 안정성검사, 하였다.

이번 축전에서는 경제강국건

설과 나라의 건축과학기술발전

에 이바지할수 있는 180여건의

과학기술성과자료들이 단체와

개인으로 갈라 발표되였으며 좋

은 연구성과와 경험들이 교환되

천정트라스에 설치할 고성기

배치와 고성기함제작기술, 빛띠

조명방식에 의한 5월1일경기

장조명설계, 측량학적방법에 의

과학기술축전이 2일부터 4일까

지 진행되였다. 건축, 도시경영, 국토환경보 호, 건축공학, 건설공학, 건축재 료, 건설기계, 정보기술분과로 나뉘여 진행된 축전에는 대학의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 학생들 이 참가하였다.

대학에서는 건설에서 대번영 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우리 당 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과 학연구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싸울리 니이

강철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가 2월 26일 하지 하싸날 볼키아

흐 브루네이 다루쌀람 추장, 국가

석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하지 하싸날

볼키아흐추장, 국가수반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전하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수반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핀란드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강용덕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 니스뙤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사가 2월 26일 싸울리 니이니 스퇴 핀란드공화국 대통령에게

인사를 전달하였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사

긍정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 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브루네이 다루쌀람 추장

인사를 전달하였다.

그는 오늘 브루네이와 조선사이

니다.》 에네르기절약형사무건물, 카리 억이 뜨겁게 되살아났다. 물유리외장재, 평양건축종합

대학 원격교육체계 《건축》 을 비롯한 많은 성과자료들이 호평을 받았다. 축전에서는 건축대학단체가

특등을, 건축과학연구소단체와 5명의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 들이 1등을 하였다.

페막식에서는 심사결과가 발표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 었다.

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최근 조선에서 경제발전 을 위해 취하는 조치들을 평가 한다고 언급하고 쌍무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해관계에 맞게

국가수반에게 신임장 봉정

추장, 국가수반은 이에 깊은 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 대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의 친선협조관계는 매우 좋게 발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전하고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이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충심으 관계를 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확 【조선중앙통신】

우리 민족이 자주독립의 기치

아래 굳게 뭉쳐 조국해방의 력

사적위업을 이룩한것처럼 6.15

의 정신으로 단결한다면 얼마든

지 분렬의 8.15를 통일의

6. 15민족공동위원회는 지난

시기 해내외의 각계층 단체들과

함께 적극적인 활동으로 북남사

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에 도움을

준 좋은 전례와 풍부한 경험을

6. 15공동선언발표 15돐과

조국해방 70돐에 북과 남, 해외

의 각계층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족공동의 통일대축전들

을 성대히 개최하고 로동자, 농

민, 청년학생, 녀성, 언론인, 종

교인을 비롯한 계층별, 부문별,

지역별단체들사이의 래왕과 접

촉, 통일회합과 협력교류를 활

우리는 6. 15민족공동위원회

를 결성하던 력사의 그날에 뜨겁

게 분출된 그 열정과 기개, 결의

대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뜻깊은 올해를 조국통일의 새 국

발히 벌려나갈것이다.

가지고있다.

8. 15로 바꾸어나갈수 있다.

조국해방 70돐과 6. 15공동선언발표 15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여는 력사적인 해로 빛내여나갈것이다

의 기치밑에 민족의 화해와 단 합, 통일의 휘황한 전성기가 펼 쳐지던 2005년 3월 4일 6.15 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6.15민족공동위원회)가 결성 된 때로부터 10년이 되였다.

6. 15민족공동위원회의 결성 은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 리행해나가려는 해내외 온 겨레 의 강렬한 지향과 의지가 안아 온 자랑찬 결실이며 민족의 대 단합과 조국통일운동을 보다 높 은 단계에로 올려세운 일대 사 변이였다.

북과 남,해외에서 북남공동 선언을 지지하는 각 정당들과 각계층 단체, 인사들을 광범하 게 망라한 6.15민족공동위원 회가 결성됨으로써 북남선언리 행을 명실공히 전민족적운동으 로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6. 15민족공동위원회는 결성 이후 북, 남, 해외의 공동통일행 사들과 다양한 련대활동들을 통 하여 6.15통일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 북남선언들을 리행하 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북 남관계개선에 좋은 분위기를 마 련해왔다.

오늘 내외의 반통일세력들에 의해 북남선언들이 부정되고 그 의 소중한 결실들이 무참히 짓 밟히고있으며 온 겨레가 힘을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 합쳐 열어놓은 하늘길, 땅길, 바 다길이 모두 막히고 격페와 대 결의 장벽이 날로 높아가는 속 에 전쟁의 위험은 더욱더 질어 가고있다.

> 6. 15민족공동위원회는 지난 10년간 걸어온 투쟁로정을 커 다란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돌 이켜보면서 6.15공동선언발표 15돐,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반드시 자주통일 의 대통로를 열어놓을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안고 다음과 같 이 결의한다.

첫 째 , 7. 4공 동 성 명 과 력 사 적 인 6.15공동 선언, 10. 4선언을 민족공동 의 통일헌장, 통일대강으로 변합없이 높이 들고 앞장에 서 실천해나갈것이다.

7. 4공동성명이 천명한 자 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 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 들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겨 레의 지향과 요구가 응축되여있 으며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정 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애국애족의 기치이다.

북남사이의 신뢰의 기초도, 대화와 관계개선도 바로 이를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하는것으 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 족이 뜻과 힘을 합친다면 못해 낼 일이 없다는 강한 민족적자 존심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 쳐 통일하자는 6.15정신으로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요 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해내외 각계층과의 대단합,대 단결을 적극 추동하며 온 민족 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고수하고 리행해나갈것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 류와 접촉을 활발히 전개하며 그 과정에 이루어지는 좋은 합 의들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고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지도록 계 속 앞장에서 노력할것이다.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 하고 비방중상하는 체제대결을 견결히 배격하며 북남관계개선 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는 온갖 적대행위와 외세의 부당한 간섭행위들을 단호히 저지시켜 나갈것이다.

둘째, 조선반도에서 전쟁위 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 머 민족의 화해와 평화적환경 노력을 기울여나갈것이다. 해마다 벌어지고있는 각종 합

동군사연습으로 북남관계는 최 악의 상태로 번져지고 대결의 악순환속에서 민족의 운명은 엄 중한 위협을 받고있다.

이 땅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

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며 북남 관계를 개선하자는것이 겨레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우리는 겨레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내외분렬세력 들의 무분별한 합동군사연습을 단호히 저지시키기 위한 전민족 적인 전쟁반대, 평화수호운동을 보다 강력히 전개해나갈것이다.

민족성원모두가 평화의 주 인, 통일문제해결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전쟁의 근원을 제거하고 항구적 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 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줄기 차게 벌려나갈것이다.

우리 민족과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식민지침략행위를 미화하 고 군사대국화로 줄달음치는 일 본정부에 경종을 울리며 력사외 곡과 령토강탈, 재일동포들에 대한 민족차별의 중지 및 과거 사사죄와 청산을 위해 전민족적 인 운동과 국제런대활동을 앙양 시켜나갈것이다.

셋째, 조국해방 70돐이 되 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 을 마련하기 위한 주동적인 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기어 면을 열어나가는 일대 전환의 해 이 열어나갈것이다.

로 빛내이는데 앞장설것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주체104(2015)년 3월 4일

납북공동선언리행, 반전평화수호투쟁 에서 청년학생들이 선구자가 되자

6. 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호소문 발표

6. 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 회(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 본부가 북남공동선언리행과 반 전평화수호투쟁에 떨쳐나설것

을 주장하여 2월 26일 호소문 을 발표하였다. 호 소 문 은 조 국 해 방 70돐, 6. 15공동선언발표 15돐이 되는 올해는 남, 북, 해 외 청년학생들에게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더욱 헌신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남, 북, 해외 청년학 생들은 6.15정신에 기초하 여 남북공동선언들을 지키고 리행하기 위한 실천활동을 더

욱 활발히 벌러나가자.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 의 리행이 곧 평화통일이며 민

족공동번영의 길임을 명심하고 제거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청년학생들속에서 6.15통일바 람이 일어나게 하자.

청년학생들은 6.15와 10. 4, 8. 15를 계기로 각종 사 업들을 전개하여 통일운동에 활 기를 불어넣고 6.15를 지지하 는 각계 단체들과의 현대를 더 욱 강화해나가자.

생들은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해 건결히 투쟁해나가자. 지금 《한》반도에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전쟁위기가 고조되

고있다. 이 땅에서 전쟁이 또다시 일어 난다면 그것은 곧 민족공멸이다. 청년학생들은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온갖 전쟁연습과 무력

재침야욕에 들떠있는 일본군국 주의세력의 책동을 추호도 용서 치 말고 철저히 규탄배격하자. 청년학생들은 평화를 위협하

는 그 어떠한 요소도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셋째,올해에 남,북,해외 둘째, 남, 북, 해외 청년학 청년학생들의 상봉을 반드시

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리자.

실현시키자. 6. 15공동선언발표이후 남, 북, 해외 청년학생들이 서로 만 나 안부도 묻고 민족의 밝은 미 래를 이야기하던것이 어느덧 꿈

같은 일로 되여버렸다. 더이상 이렇게 지낼수 없다. 남북공동선언리행과 반전평 화수호를 위한 길에서 청년학생 들이 선구자가 되자!

대립을 격화시키는 군사연습 중지하라

증강을 반대하며 전쟁의 근원을

재일동포단체들 도교에서 항의투쟁 전개

《재일한국민주통일련합》, 《재 일한국청년동맹》, 《재일한국민 주녀성회》, 《재일한국인학생협 의회》가 2월 23일 일본에서 미 국과 남조선당국의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책동을 중 지할것을 요구하는 항의투쟁을 전 개하였다. 단체성원들은 도꾜에 있는 일본주재 미국대사관주변 에서 《한미합동군사연습중지》,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등의 글이 씌여진 프랑카드와 현 강조하였다. 이어 단체들은 일 수막을 들고 구호를 웨쳤다.

미국대통령 오바마에게 보내 는 요청문이 랑독되였다. 요청 문은 《키 리졸브》、《독수리》합동 군사연습은 북에 대한 핵침략전 쟁을 위한 야만적이고 공격적인 대규모훈련이라고 지적하였다. 대립을 격화시키고 파멸을 가져 올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책 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요청문은

본주재 남조선대사관으로 이동 하여 박근혜《정권》퇴진을 요구 하는 항의행동을 벌렸다. 단체 들은 항의문을 통해 6.15공동 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북남관계를 파탄시키며 미국과 의 합동군사연습책동으로 대미 추종을 일삼는 반민족적, 반통 일적인 《정부》를 단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불멸의 꽃 김정일화전시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진, 도서 및 수공예품전시회

봉 골 에 서 로 씨 야 와 진 행

김정일화와 조선민주주의인 로 일관되여있다. 민공화국 사진, 도서 및 수공예 품전시회가 광명성절에 즈음하 여 지난 2월 9일부터 20일까 지 로씨야 나호드까에서 진행되 였다. 전시회장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붉고붉은 불멸의 꽃 김정일화들 이 전시되여있었으며 그 량옆에 우리 나라와 로씨야기발이 걸려 있었다.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 한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선군조선을 소개 하는 사진, 도서들, 우리 인민의

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나호드까시 부시장 두또브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슬기와 재능이 깃든 수공예품들

이 전시되여있었다. 전시회에는

로씨야 나호드까시의 각계

김정일동지의 한평생은 조국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의 평 화적통일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 였다. 또한 로씨야와 조선사이 의 친선관계발전에 커다란 공헌 을 하시였다. 2015년은 로조친 선의 해이다. 우리는 조선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 나호드까시위원회 제1비서 젤 레노브는 로씨야의 조국전쟁승 리 70돐과 조선해방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두 나라사 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 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 결의를 피력하였다.

위인칭송의 불멸의 꽃 김정일화전시회가 광명성절에 즈 음하여 지난 2월 12일 몽골 울란 바따르에서 진행되였다. 전시회 장은 선군태양을 우려르는 만민 의 흠모심의 분출인양 만발한 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 김정일화들로 황홀경을 이루고있

었다. 전시회에는 몽골의 각계 인 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몽골민족민주당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경의를 드린다.

엄혹한 추위속에서도 활짝 피 여난 김정일화는 김정일각하에 대한 몽골인민의 열렬한 흠모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있다. 위인의 존함을 모신 김정일화는 몽골땅

에 영원히 만발할것이다. 몽골정치경영학원 원장은 다 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선군정치 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시였다.김정일각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 해나가시는 김정은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전진하는 조 선인민에게는 있을것이다.

한편 중국 대련, 심양에서도 지난 2월 10일과 13일에 김정일화전시회가 진행되였다.

구하고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한것과 관 련하여 2일 남조선 전지역에서 항의투쟁이 벌어졌다. 50여개의 각계층 시민사회

신】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

이 내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

전 쟁 을

단체들로 구성된 《전쟁반대 평 화실현 국민행동》은 서울의 미 국대사관주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이날부

터 감행되는 합동군사연습은 북 에 대한 선제공격전략인 《맞춤 형억제전략》을 작전계획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이라고 밝 혔다.

대규모의 공세적무력이 참가 하는것만 놓고도 이번 합동군사 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것임을 잘 알수 있다고 규탄하였다.

북의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강화하는것도 【조선중앙통신】 제2의 조선전쟁발발을 불러오

【평양 3월 4일발 조선중앙통 는 전쟁연습으로서의 이번 합동 군사연습의 위험성을 잘 보여준 다고 단죄하였다.

초래하는

전쟁위기의 악순환을 끊고 조 선반도핵문제를 해결하자면 선 차적으로 합동군사연습을 중지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조선과 미국이 진정으로 조 선반도비핵화를 원한다면 군사 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북의 요 구를 받아들이지 못할 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불안정한 정전체제속에서 전 쟁연습과 군비경쟁으로는 결코 평화를 지킬수 없다고 하면서 단체는 전쟁불장난소동을 반대 하는 시위와 집회를 비롯한 다 양한 투쟁을 벌려나갈것이라고

밝혔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통사)은 여러 시민사회단체 들과 미국대사관앞에서 공동으 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북 의 평화적제안을 거부하고 끝내 군사연습을 벌려놓은것은 남북

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에 역 행하는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불장난소동을

이번 군사연습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긴장을 조성하여 미국의 패권적리익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라고밖에 달 리는 볼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 은 당국이 합동군사연습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날 평통사소속 단체들이 부 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경 기도 부천 등 전지역에서 일제 히 기자회견을 가지고 시위투쟁

을 전개하였다. 《부산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 람들》은 부산항과 진해해군기 지앞에서 가진 기자회견들에서 년초에 조성되였던 남북화해의 분위기가 미국의 방해로 얼어붙 은 상태에서 전쟁연습이 벌어짐 으로써 군사적긴장을 더욱 격화 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였다고 성

토하였다. 특히 합동군사연습에 새로 조 작된 남조선미국련합사단이 참 가하는것은 북에 대한 《점령작 전》을 구체화하기 위한것이라 고 폭로하였다.

당국이 군사연습을 그만둘데 대한 내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단체는 강조하였다. 6. 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 회 부산본부는 부산시청광장에 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국이

군사연습규모를 축소한것처럼

주장하고있지만 그것은 거짓말 이라고 단죄하였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 군사연습은 전쟁억제가 아니 라 전쟁발발을 초래할수 있는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이라고 항의하였다. 단체는 당국이 미국의 대조선 전쟁정책에 동조해서는 안된다 고 하면서 남북대화에 훼방을 놓고 정세를 위기에로 몰아가는

구하였다. 6. 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 회 전북본부를 비롯한 전라북도 지역의 20개 단체도 전주에서 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요구하

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공세 적인 《맞춤형억제전략》 등에 기

규란한다

초한 합동군사연습은 대화분위 기에 역행할뿐아니라 선제공격 을 불법으로 규정한 국제법에도 어긋난다고 규탄하였다.

이것은 전쟁위기를 없애는것 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난하였다.

단체들은 이날부터 전주와 군 산, 익산, 김제 등지에서 조선반 도평화를 요구하는 시위투쟁을 벌려나갈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 청년학생본부도 괴뢰통 일부앞에서 합동군사연습을 규 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이밖에 경기도 성남에 있는 미국남조선《련합군사령부》 지 휘통제소앞은 물론 경상북도 왜 판, 경상남도 창원 등 도처에서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의 북침전 쟁연습을 규탄하는 투쟁이 광범 히 전개되였다.

짜증난 상전, 뺨맞은 하수인

얼마전 백악관이 이스라엘수상 네타냐후를 호 되게 비난하였다. 네타냐후가 미행정부의 동의 도 받지 않고 미국회에서 이란핵협상과 관련한 연설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는것이다.

미국가안보담당 대통령특별보좌관이 나서서 네타냐후의 결정이 미국과 이스라엘사이의 관 계를 파괴하는것이라고 위협하고 지어 오바마 는 네타냐후가 워싱톤을 방문하더라도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미국과의 《공고한 동맹관계》를 제창하며 살 수인이고보면 그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라고 해 한 배추잎모양이다. 야 할것이다.

이란핵문제를 놓고 신통한 수를 찾지 못해 골 머리를 앓는데다가 국내의 강경보수세력으로부 터 우유부단하다는 시달림까지 받고있는것으로 하여 신경쇠약에 걸릴대로 걸린 미행정부이다.

그런 판에 네타냐후가 쫄딱 나서서 미국회에 서, 그것도 미행정부를 압박하고있는 공화당소속 국회의원들앞에서 연설까지 하겠다고 했으니 백 악관이 곱다고 하겠는가.

네타냐후가 대이란정책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로 갈라져있는 미국내의 세력구도를 리용하여 갑게 놀아온 네타냐후로서는 억울하겠지만 상 오그랑수를 쓰다가 미행정부의 부아만을 더욱 전의 심리적고충도 헤아릴줄 모르는 미련한 하 돋구었으니 하수인의 몰골은 그야말로 초절임당

조사자료에 의하면 올해에 들어

뎅 구 열

브라질에서 뎅구열이

퍼져 피해를 입고있다. 최근 이 나라에서 발표된 한 와 2월 중순까지 전국적으로 10만명이상의 뎅구열환자가 등 록되였다 한다.

신 형 독 감 인디아에서 신형독감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2월 26일 이 나라 보건성은 올해에 들어 와 25일현재까지 전국적으로 A(H1N1)형돌림감기비루스에 의한 사망자수가 965명으로 늘

국제여론의

어났다고 밝혔다.

신종코로나비루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2012 년 신종코로나비루스가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감염 자수는 912명으로 늘어나고 그 중 388명이 목숨을 잃었다. 장 리 브 스

우간다에서 최근 장티브스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고있다. 2월 25일 이 나라 보건성은 수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513명의 장티브스환자가 등록되였으며

아 그중 건물이 되고 말했다. 환자들 그중 2명이 목숨을 잃 을 격리시키고 위생선전을 강화 하는 등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말 라 리 아 부룬디에서 말라리아에 의한 인명피해를 입고있다. 2월 19 일 이 나라 정부는 지난해에 전 국적으로 473만 1 986명의 말 라리아환자가 등록되였으며 그 중 2 365명이 목숨을 잃었다 고 밝혔다. 그들중 대다수가 어 린이들과 임신부들이라 한다.



팔 레 스 리 나 에 서 반이스라엘시위

미국의 인권유린만행을 규탄하는 모임

2월 25일 미국의 인권유린만행 을 규탄하는 모임이 진행되였 다. 모임참가자들은 성명을 채

아프가니스탄에서 눈사래피해

택하여 지난해 12월에 미국회 상원 정보위원회의 보고서에 의 해 폭로된 중앙정보국의 체포 및 고문만행이 미행정부의 항시 적인 인권침해행위들을 충분히 립증해주고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한 미국제개발처를 비롯한 정부기판들이 정상적으 회주의자당, 아랍나쎄르당. 사 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면 회정의당, 사회주의로동당, 아 서 유엔헌장에 명기된 주권국가 랍사회주의당, 민족진보통일런 에 각각 발송되였다.

나 라 에 서 오스트리아의 원에서 지난 의 독립과 자주권에 판한 권리를 합당 등 여러 정당 당수들과 대 침해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그 표들 그리고 유엔공보국 국장 러면서 성명은 미국이 국내외에 서의 인권유린행위들을 당장 중 지하고 유엔헌장을 철저히 준수

> 17일 미국의 인권유린만행을 규탄하는 에짚트정당 대표들의 공동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이 나라의 자유사

과 수십명의 기자들이 참가하 였다. 회의참가자들은 미국이 야말로 자주적인 나라들과 인 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편 에짚트에서 지난 2월

무더기비피해

브라질에서 지난 2월

리오 브란꼬에서도

민들의 권리를 무참히 유린하 는 인권유린의 왕초이며 인권 피고석에 앉혀야 할 장본인이 라고 단죄하였다. 회의에서는 《미국의 고문만행 을 규탄하는 에짚트정당들의 성

명》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였으며 유엔사무국과 유엔인권리사회

25일 무더기비에 의한 들이 취해지고있다. 피해를 입었다. 강풍을 열대성폭풍피해 동반한 무더기비로 싼 빠울로에서 큰물이 나 오스트랄리아 퀸슬랜 고 교통이 혼란상태에 드주에서 최근 열대성 빠졌다. 또한 나무가 뿌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 리채 뽑히워 넘어지면 가 났다.폭풍으로 서 전기줄을 끊어놓아 1 500여채의 살림집이 파손되고 5만세대에 대 감전사고를 일으켜 사 망자가 발생하였다. 한 전력공급이 중단되

였다 한다.

한지에 나앉았다. 피해

지역들에 비상경계령이

내려지는 등 긴급조치

얼마전 로씨야국방상 쇼이구 가 베네수엘라, 니까라과, 꾸바 에 대한 방문을 진행하였다. 의식이 강한 나라들이다. 그의 방문은 국제여론의 초점

으로 되였다. 정세전문가들은 로씨야국방 상이 3개국방문과정에 군사협 력확대문제들을 토의한데 주목 을 돌리면서 이것은 반로씨야군 사적압박도수를 높이고있는 미 국에 대한 로씨야의 강경대응으

로 된다고 평하였다. 로씨야국방상의 라틴아메리 카나라 방문은 미국에 있어서 큰 우려가 아닐수 없다.

미국 등 서방언론들은 이 사실 을 두고 로씨야가 베네수엘라와 니까라과, 꾸바에 대한 군사적진 출을 확대함으로써 미국을 바싹 조이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하다면 로씨야가 미국을 견 제압박하는데서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중시하는것은 무엇때 문인가. 우선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

반제반미적인 경향이 거세여지 고있는것과 관련된다. 라틴아메리카는 어제날의 미 국의 《고요한 뒤동산》이 아니며 이 지역에서 미국의 지위는 날 [|] 이 갈수록 약해지고있다.

그 어느 나라들보다도 반제반미 이것이 로씨야가 라틴아메리

카나라들과 군사협력을 확대할 수 있게 한 근본요인으로 되였 다.이 나라들은 로씨야에 있어 서 매우 가까운 동반자, 협조자 로 되였다. 이번에 그것이 더욱 뚜렷해졌다.

로씨야국방상은 베네수엘라 국방상과의 회담에서 현 국제 안전문제에 대한 로씨야와 베 네수엘라의 일치한 립장에 대 하여 지적하면서 개별적국가들 을 힘으로 강박하려는 시도를 규탄하였다. 베네수엘라국방상도 로씨야

인민과 한전호에 서있을것이라 는 립장을 표시하였다. 베네수 엘라는 미국의 끈질긴 압력에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로씨 야무장장비들을 구입하고있다. 니까라과대통령은 로씨야국 방상과의 상봉시 미국이 온 세 계에 혼란의 씨앗을 뿌리고있으 며 미국이 있는 곳에서는 무질 서가 지배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로씨야의

모든 조치들을 지지성원하였

베네수엘라, 니까라과, 꾸바는 기 나라의 이러한 립장을 확고 히 밝혔다.

다음으로 라틴아메리카지역 이 미국에 대한 포위환을 형성 하는데서 유리한 곳이라는데 있 다. 특히 국방상이 방문한 3개 국들은 로씨야의 전초기지로서 는 매우 알맞춤한 지리적위치에 있다. 서방관측자들이 이 나라 들과 로씨야의 군사적협조가 미 국의 문턱을 위협하고있다고 한 것은 우연하지 않다.

이번에 로씨야는 베네수엘 라와 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할 데 대해 합의하였다. 꾸바와도 두 나라사이의 력사적인 관계 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일 련의 군사협력문제들에서 견 해일치를 보았다. 니까라과와 는 이 나라 항구들에 대한 로 씨야함선들의 입항절차를 간 소화하는 문제,로씨야기술수 단들을 리용한 지형측정쎈터 를 창설할데 대한 문제,니까 라과운하건설에서 나서는 문

제들을 토의결정하였다. 이 합의들가운데서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것은 니까라과운 하건설에 관한것이라고 할수 있다.이에 대해 로씨야는 이 다. 꾸바내각수상도 이번에 자 운하건설은 단순히 경제 및 하

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한 사코 이것이 로씨야의 군수보 아닌 미국이다. 급로로 될것이라고 하면서 운 하건설에 신경을 곤두세우고있 다. 이 운하는 미국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빠나마운하보다 더 긴 운하로 건설되고있다.

부구조건설계획의 일환으로 된

만일 입항절차까지 간소화된 시점에서 태평양과 까리브해를 련결하는 이 운하가 건설된다 면 로씨야는 라틴아메리카나라 히 진행할수 있는 군사통로를 가지게 된다는것이 미국의 주 장이다. 게다가 니까라과가 이 미 로씨야와 특수협정을 체결 함으로써 로씨야의 전투함선들 과 비행기들이 올해 상반년에 태평양 및 까리브해연안에서

순찰을 진행하게 되여있다. 미국은 로씨야국방상의 꾸바 방문과 때를 같이하여 아바나항 에 가장 현대적이고 강력한 탐 지능력을 갖춘 로씨야함선 《윅 또르 레오노브》호가 정박한 사 실을 두고도 불안해하고있다. 외신들은 이에 대해 로씨야와

미국의 군사적대결이 초읽기단 계에 들어섰다고 전하였다.

소용돌이속에 몰아넣은 장본인

이 누구인가 하는것이다. 다름

미국은 지난해부터 우크라이 나사태를 걸고 반로씨야책동에 광분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 도 여전히 복잡해지고있는 우크 라이나사태의 책임이 로씨야에 있다고 하면서 반로씨야포위환 을 형성하기 위해 로씨야의 주 변나라들에 수많은 무력을 들이 밀려 하고있다. 우크라이나에 들과 군사적교류를 더욱 활발 대한 무기지원도 서슴지 않고있 다. 최근에 미공군은 대로씨야 압박조치로서 전투기들을 동쪽 으로 더 전진배비할 계획도 가 지고있다고 발표하였다.

> 미국은 도이췰란드에 있는 미 군사기지에 《A-10》전투기 1 2대를 배비하려 하고있다. 이 전투기들은 비록 낡았지만 반땅크. 반보병전에 매우 효과 적이라는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주장이다.

> 이것만 놓고서도 미국이 벌리 고있는 반로씨야책동의 위험성 을 잘 알수 있다.

> 앞으로 로미관계는 계속 첨예 화될것이라는것이 정세전문가들 의 평가이다.

본사기자 박송영

